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Winter, 2023

# ISHMAEL OUR BROTHER

한국이슬람연구소 매거진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 2023년 겨울호



#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 2023년 겨울호

권두언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 도시와 광야의 영혼들을 향하여 / 김아영 3

초대의 글 4

개회설교 참된 평안을 위하여 / 이현수 6

첫째 날

말씀나눔 약속, 헌신 그리고 꿈 / T국 선교사 11

강의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1) / 김진혁 14

발표 환대 / 권주로 26

환대의 관점에서 난민의 이해와 접근 / 주나힘 33

둘째 날

말씀나눔 예수님 발치에서 / 주히바 37

강의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2) / 김진혁 38

발표 무슬림 회심자들의 영성 형성 / 이여미 52

성령과의 동행 / 임재 54

셋째 날

말씀나눔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 / 아브라함조 59

강의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3) / 김진혁 62

발표 성령이 세워 가시는 공동체에 대한 도전들 / 한빛 77

도시에서 만나는 광야 / 홍재훈 80

우리의 기도 / 임재 82

폐회설교 환대의 재구성(Deconstructing Hospitality) / 박두레 84

참가 후기 전혀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다 / 송울 86

연구소 소식 91

후원자 91

- 발행일 | 2024년 1월 20일
- 발행인 | 오덕교
- 편집인 | 김아영
- 발행처 | 횃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 전 화 | 02-570-7563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 E-mail: [ttcis@ttgu.ac.kr](mailto:ttcis@ttgu.ac.kr)
- <http://ttcis.ttgst.ac.kr>



Photo : Joanne Seoyoung Lee

#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 도시와 광야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해의 벽두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호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는 조금 늦게, 특별한 내용을 담아 발간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남유럽의 한 도시에서 한인 이슬람권 사역자 서른다섯 명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강의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슬람권 선교의 태도와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페인어로 레콩키스타, 포르투갈어로 헤콩키스타로 불려지는 800년 가까운 기독교-이슬람의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에서 모인 저희는 “재정복”, “영토 회복”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환대”하는 선교에 대해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막바지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고 그 영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분들, 모임 후에 고향 같은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생겼으나 그것은 우리의 사역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어서 기도제목을 나누며 더욱 간절히 무슬림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비가 가득 내리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1세기가 되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야만적인 전쟁과 폭력의 소식들로 가득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개입이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죄인됨을 직시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슬람 선교의 현장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임을, 너무나도 확실하나 쉽게 간과되어 버리는 이 사실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번 호 매거진에는 지난 가을에 있었던 이 모임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모임을 앞두고 발송된 초청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삼일을 꼬박 귀한 강의로 함께 해주신 김진혁 교수님의 강의록도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에서 나누어진 동역자들의 귀한 말씀과 여섯 편의 발제, 그리고 그에 대한 토론의 간단한 요약, 모임을 마치고 covenant 대신 간절함을 담아 드려진 김진영 선교사의 기도문, 그리고 송울 선교사의 참석 후기를 통하여 이 시대 이슬람권 선교 현장에 흠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치열한 현장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되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하시는 사랑의 신학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두언을 빌어 이러한 모임이 가능하도록 함께 해주신 준비위원들, 후원해 주신 이슬람파트너십, 갈보리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아시안미션, 아부다비온누리 교회, 우드베리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전에는 강의로 수고하시면서 오후에는 말라가에 흠어진 유적을 찾아 신학적 해석과 함께 강의로 고스란히 풀어내 주신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진혁 교수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와 문제를 안은 현장을 안고 먼 곳까지 와서 참석해 주신 동역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된 2024년의 시간들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환대하심의 복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23 Malaga Gathering Hospitality with the Holy Spirit: Responding to City and Wilderness

## 초대의 글

팬데믹이 선언되고 사 년째 여름을 지나며 세계는 조심스럽게 old normal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반갑기는 해도 그동안 우리가 집단으로 경험했던 질병과 죽음, 특별히 존엄하지 않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기억은 쉽사리 떨쳐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역자, 교우들과 적절한 인사의 나눔도 없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겪은 그 소회를 설명할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시간을 넘어 “다시”를 외치며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털어내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무슬림들과 함께하는 복음 증거의 현장은 “다시”가 아닌 “여전히”, 혹은 “계속해서”인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주도하는 활동으로서의 선교들missions은 주춧듯 보였으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멈춘 적이 없어 세상 어느 곳에서는 무슬림들이 여전히 꿈을 통하여, 혹은 전쟁과 추방과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 알 마시흐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모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3 Malaga Gathering이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Hospitality with the Holy Spirit: Responding to City and Wilderness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 도시와 광야의 영혼들을 향하여)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주제에 나타난 키워드는 환대, 성령, 도시, 그리고 광야입니다.

선교가 텍스트(복음)와 컨텍스트(상황)사이의 integration(통합)이라고 정의할 때 이 주제의 전반부는 텍스트에, 후반부는 컨텍스트에 해당됩니다.

주제와 모임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6인의 준비 위원회는 이슬람 선교 실천가와 연구자, 무슬림 학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survey를 통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슬람 선교의 키워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주제어로 담아내었습니다.

환대는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만 국한되어 논의해 왔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가 피조물이요 죄인인 인간에 대한 환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환대의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구현으로서의 이슬람 선교에 대해 많은 동역자가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실천의 동력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며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맺으시는 다양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끈으로서의 성령<sup>1</sup>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저서를 통하여 설명한 바 있는 김진혁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는 주제 강의에서 함께 생각하며 논의하게 됩니다.

주후 610년경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에게 주어진 첫 계시를 통하여 시작된 이슬람은 아랍인 다수의 삶의 터전이었던 광야와, 상업도시로 약진해 가고 있었던 메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광야는 우리의 섬김의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난 세기에 이미 안정화된 북반구의 도시화와 달리 동역자 다수가 살아가고 있는 남반구의 도시화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대로 도시에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문화의 창조자들, 이주민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다수는 도시에서 살아가나 그곳은 동시에 광야이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번잡함과 고독이 공존하는 동시대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나누는 방식은 동역자들의 나눔과 토론을 통하여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 그 앞에 선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고, 그것의 정상적인 결과는 기존 종교로의 귀의로 이어지지만 비정상적인 결과는 종교와 교단을 막론한 이단과 신비적 방식들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한 것들과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세밀한 성찰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인내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들이 지속적으로 설명되고 전파되어지기를, ‘23 Malaga Gathering이 그러한 태도와 방법을 논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동역자님을 초청합니다.

1. 김진혁,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서울: 복 있는 사람, 2022), 165.

# ‘23 Malaga Gathering Hospitality with the Holy Spirit: Responding to City and Wilderness

개회설교

## 참된 평안을 위하여

● 이현수 | 프론티어스 대표

2023년 가을, 스페인 말라가에서 31명의 사역자들이 일주일 동안 모였습니다. 오랜 준비 이후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사역자들을 초청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사역자를 초청해서 모두에게 알려진 모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모이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적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말라가 23’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환대 (The Holy Spirit and Hospitality)”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모임의 준비위원 중 한사람으로서 ‘개회예배’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단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저도 며칠 동안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사역자들이 쉽게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살피면서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평안한가?’, ‘나는 정말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매일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 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 떼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 떼 아이와 같도다.”(시편 131:1-2)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계선교와 한국선교는 지난 시간 숫자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달려왔다고 봅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복음적 진보와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는 선교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숫자와 통계가 우리 대화의 화두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국제사역자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앞에서 나누는 발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20년 전에 일을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발제 하는데, ‘아~ 모두들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지울 수 없는 인상과 함께 여전히 20년 전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뀐 것이 없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중에 일의 참된 진보가 있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갖고,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높은 곳에, 그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나오는 평안을 바란다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라가 23> 모임이 추구하는 바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큰 도전 앞에 놓여있습니다. 사역의 돌파를 경험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존이 더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역에 대한 진보에 급급하기보다 다시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다시 믿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시고 전능한 자이신 예수께 다시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쁘게 주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나의 이웃들에게 보일 정도로 나누고 있는가?” 이런 솔직한 질문을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감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저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간절한 바람이 어느 순간 우리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감격은 뒷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사역적 관심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 침체가 매일의 일상에 스며들게 됩니다.

많은 사역자가 사역에 대해서 열정적인 나눔을 가질 지는 몰라도,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감사가 적고 대의 명분으로 여러 사역을 재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비판과 불평, 정당성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 그리고 격려와 감사로 가득차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시거나 능력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과 사역을 대해야 하는지 전적으로 예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역적 전략이나 방법이 두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이웃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사역의 목표를 잡지 말고 한 명의 제자를 목표로 한다면 너무나도 겸손한 것일까요? 저는 이번 <말라가 23> 모임에서 이런 본질적인 것을 주님 앞에 묻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23 Malaga Gathering  
Hospitality with the Holy Spirit:  
Responding to City and Wilderness

첫째 날 ●



# 약속, 헌신, 그리고 꿈

● T국 선교사

##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일생동안 붙잡고 있는 두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야곱에게 뱀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국어 성경에는 주어가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어가 분명합니다.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주어가 “I”, “I”, “I”입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 이루시고 저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은 훌륭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기꾼이었던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한가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릭 워렌이 쓴 『목적 이끄는 삶』은 ‘이것은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

다’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지? 이와 같은 질문은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에 있어서 잘못 시작이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때까지 저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믿음의 여정 속에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선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선교를 가야 할지 선교지를 찾는 가운데 T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T 국에 도착하여 2년간 언어문화를 습득하는 가운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였고, 대학교수로서 폴타임으로 가르치게 되면서 교수로 현지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25년 넘게 교수로 또 현지 교회의 장로로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우리들을 부르실 때, 먼저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전략을 사용하여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



르심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부르심이고,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부르심입니다. 선교지에 온 지 2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 45분간의 경기를 돌아보며 나머지 후반전 45분을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온 지 7년이 되었을 때 교수로서의 사역, 교회 개척, 또 선교단체의 지역 필드 리더를 하며 세 가지 풀타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바쁘게 돌아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며 하프타임을 해야만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에 읽었던 풀러신학교의 밥 클린턴 교수님께서 리더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쓰신 *The Making of a Leader*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한 신자는 내적 삶이 성장해 감에 따라 사역이 성숙해 가고 또 삶이 성숙함을 통하여 리더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리더로서 일을 잘할수록 더 많은 일들이 맡겨지며, 대부분의 리더들은 많은 책임을 감당하느라 그다음 단계인 수렴convergence을 통한 꽃피우는 단계afterglow or celebration에 들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향해 수렴되어야 함을 깨달으며 세 가지 풀타임 일에서 두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직 고쳐야 할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전도해야 할 마을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놔두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것을 하기 원하고 저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출애굽기를 읽으며 모세의 삶을 다시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간의 세월과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후에 하나님을 만나며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모세를 바라보며 저도 나름대로 저의 삶을 구상해 봅니다. 싱글로서 30년간 살았고, 그 후 30년을 결혼하여 거의 모든 세월을 선교지에서 살았고, 60살이 넘은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지막 30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 두 번째 이야기

한 여인이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 귀한 향유병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세 복음서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롯 유다가 “웬 낭비인가” 하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What a waste!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의 헌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할 제자들이 웬 낭비인가 하고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책망에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에게 받는 실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녀의 내부에서 오는 실망입니다. 그 책망을 들으며 그녀는 향유를 바치고자 했던 자신의 결정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에 빠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하여 주님께 바쳤건만, 그녀가 드린 헌신이 정말로 하나의 낭비로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의 하나는 <플래툰>이라는 월남 전쟁에 관한 영화입니다. 미군이 베트남과 전쟁하면서도 미군 사이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인 찰리 쉰이 헬리콥터에서 독백을 합니다. “The enemy was within.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

선교지에 선교사의 삶은 외부 환경에 의한 어려움과의 싸움이라기 보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선교사는 외부에



서 오는 뿔박 가운데도 선교지를 지킬 수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저도 많은 고민 후에 선교에 헌신하여 선교지까지 왔지만, 때때로 선교지에 온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혹시 선교지에서 저의 삶이 별다른 열매도 없이 하나의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고 본인도 의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이슬람 선교는 힘듭니다. 열매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헛수고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들이 낭비인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며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쉽게 말하지만,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첫 발자국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얼마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을까? 단순히 거기 유명처럼 보이는 분이 진짜 예수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가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만일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느 때를 가보고 싶은지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데 그 순간으로 가보기를 원한다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저도 그 순간을 목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를 목격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갈라진 그 바닷속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얹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구경꾼과 같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 옆에서 쩡쨍 뛰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계신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먼 훗날 세월이 지나 베드로가 나이가 들었을 때 물 위를 걷은 사건을 머릿속에 회상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에 빠졌다는 창피함?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걷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자랑?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배에서 조심스레 한 발을 물 위에 디뎠을 때 발밑에서 받쳐주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던 순간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났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한 꿈이 있습니다. 안전지대인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을 때 나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환희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 더욱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1)

● 김진혁 |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 I. 21세기 신학과 선교에서 환대의 중요성

성경에서 환대라고 할 때 환대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건 창세기 18장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환대하는 장면은 이후 삼위일체론의 발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림 1]은 말라가 대성당 제단입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 무슬람이 점령한 곳에 기독교가 다시 들어오며 모스크를 부수고 그 폐허 위에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말라가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말라가 대성당의 이름은 ‘성육신의 대성당’입니다. 상당히 신학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선교라는 것이 만남과 대화라기보다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나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이 두 문명의 만남, 혹은 두 종교의 만남 속에서 한쪽은 승리자 다른 쪽은 굴욕감을 가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두 종교 사이의 오랜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선교는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공통 키워드는 바로 환대입니다. 이 환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1세기 신학과 선교의 핵심어

21세기 신학의 핵심어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론의 재발견입니다. 20세기 이후 주도적인 개념이 되었던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 삼위일체론, 특히 성령론의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 기독교 시대, 지구촌 기독교 시대입니다. 이제 서유럽 중심이 아닌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기독교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되는 도시화



◀ 그림 1

와 그 문제입니다. 도시화는 매년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난의 문제, 다원화의 문제 등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도시화라는 문제와 함께 도시에서의 영성, 도시에서의 선교가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이에 대한 노출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예전에는 무슬림과 기독교가 군사력을 가지고 경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진리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환대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환대란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대는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어떻게 환대를 이해하고, 교회사 속에서 환대가 어떻게 재정비되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환대와 가장 비슷한 개념

은 ‘손 대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로마서 12장 13절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구절입니다. 여기 philoxenian이 똑같이 쓰인 곳이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12)

이 필로세니아라는 어원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 혹은 필로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세노스라 하면 손님 객, 심지어 적까지 됩니다. 손님의 친구가 되는 것, 손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환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유사어로 세오세니아에서 ‘세오’의 어원적 의미는 신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 나그네를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다는 이야기, 이것이 후에 삼위일체론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대 신화에는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손님이 신이었다,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면 축복을 받고 잘 대접하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고대



문헌 중에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보면, 손님이 주인에 대한 예의를 어기면 신들이 화를 내고 전쟁에까지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환대는 주인이 베풀어야 하지만 손님도 손님으로서 예의와 덕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환대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환대의 참 의미는 대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공간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주인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making room*, 이것이 환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환대는 무엇을 준다는 것보다 인격적으로弼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날 환대 개념은 신학과 선교와 철학, 심지어 정치학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신구약 성경과 환대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그네를 받아들였더니 그 나그네가 신이 된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 창세기 18장과 19장이 대표적인 환대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너희도 원래 나그네인데 나그네에 머물지 말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힘이 세고 부유하기 때문에 환대하는 게 아니라 땅도 없고 약하지만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격을 규정해 주십니다.

다른 예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준 여인들, 모압 여인 롯을 환대한 보아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롯기에서는 환대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되새겨야 할 순간, 혹은 구원의 역사가 전환점을 맞을 때 어떤 이름 없는 혹은 성경에서 전면에서 나치지 않았던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드실 때 잔치나 결혼처럼 음식과 삶을 풍성히 교류하는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불러모아 실제 식탁 교제를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도 환대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환대라는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환대는 어떤 중요성이 있고 신약에서는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환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환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속해서 환대 이미지로 설명하시는 것을 예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4장과 25장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피폐한 삶을 잔치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재미가 없는 삶으로 묘사합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술 따라주고 기름진 고기를 구워주시다고 표현합니다.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극복과 하나님의 환대가 하나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단순히 개인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백성들을 초청해서 환대의 테이블을 만드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환대 이미지를 가지고 신약이 여러 가지 재미있

는 주제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1-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고 했을 때 첫 기적으로 언급되는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가득 부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많은 전통적인 해석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는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하고 싶어도 포도주가 없어 기쁨이 없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이사야서 25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주를 우리에게 대접하시는 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기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환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로 '심방'을 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디베랴 호수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두 장면 모두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생선을 구워주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환대의 사건이었습니다. 환대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회복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림 2]는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있고, 빵을 떼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린 두 제자가 놀라는 표정입니다. 렘브란트는 일부러 문이 보이도록 구도를 일부러 틀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림 2

문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대칭 구도로 그렸다고 합니다.

### 교회의 역사에서 환대

이제 교회의 역사에서 환대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이 이해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초청받은 대로 타자를 환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환대하실 때 그 초청에 참여하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그네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로 환대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그네 되신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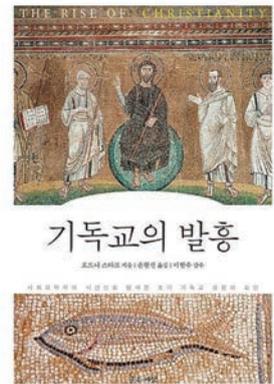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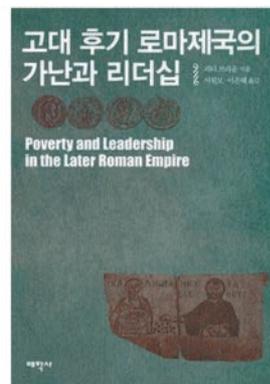
고대 사회에서도 환대가 상당히 중요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환대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서로 초청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위가 낮거나 낮은 이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고 때로는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사회적 계층을 넘어서는 환대를 보여주하고자 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당시에 사회 전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된 요엘의 예언, 즉 늙은이와 젊은이,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이 오순절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언의 사건이 아니라 환대하는 인간으로 빛어질 것, 이것이 환대와 성령이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자기와 다른 부류, 다른 출신,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환대하고 손님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대는 기독교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핵심어이자 동시에 고대 그리스도교가 빠른 시간에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환대가 중요하고, 초대교회



에서 선교와 환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환대라는 단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며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게 되고 교회가 제도화, 체계화되면서 이는 환대 사역의 전문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환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할 덕목이자 의무였다면, 교회 사역의 전문화는 환대를 선택된 몇 명의 임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학교와 병원이 만들어지고 환대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환대의 중요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환대의 공간이 좁이었다면, 중세로 넘어오면 교회, 수도원, 병원 등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환대 사역의 전문화와 맞물려 환대가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환대가 사적 장소로 들어오는 것까지 요구했다면, 이제 환대가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뤄지는 인격적인 교류 혹은 손님을 맞이할 때 오는 윤리적 도전 등이 약화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환대의 사역이 편해졌습니다.

이후 모든 믿는 이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서의 환대라는 개념보다는 전문화된 사역으로서의 환대가 더 자리 잡게 됩니다.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국가가 개인이나 교회보다 복지에 있어 더 우위를 보입니다. 세금을 거두고 전문 인력을 길러내서 훨씬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대는 낯선 이와 함께 공간을 나누며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친지 등을 불러서 음식 나누는 정도의 친교로 의미가 변화하였습니다. 혹은 여행할 때 호텔에 머무르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환대의 의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소화되고 전문화되고 직업과 결부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레멘스 1서』라는 중요한 초대교회 문서가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빠르면 주후 100년입니다. 클레멘스는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직접

안수한 베드로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클레멘스 1서』에 보면 흥미롭게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중 아브라함, 롯, 라합 이 3명이 믿음과 환대로 인해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받았다는 강조하는 개신교 신앙에서는 매우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절 때문에 믿음과 환대라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중요한 유산 중 하나를 잃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합니다.

속사도교부라고 불리는 클레멘스 1세의 시대, 특히 베드로에게 직접 안수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있던 시대. 그때 사람들이 믿음과 환대를 거의 동급으로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II. 환대의 성령론

### 환대의 신학에 제기되는 물음

환대 신학을 전개할 때 제기될 법한 몇 가지 의문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대에 대한 강조가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실제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 교리 속에서는 환대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에, 환대라는 주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교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이미 즐겨 사용되는데 이웃사랑과 환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 철학이 환대에 대해서 많이 하는 비판입니다. 환대는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는 주인과 손님 사이의 권력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줘야 너는 들어오고 내가 음식을 줘야 너는 먹을 수 있다.’ 따라서 환대는 권력 관계를 고정하고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으로서 타인을 초청한다는 환대 개념이 오히려 타자를 취



약한 위치에 묶어두고 더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환대는 이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르고 문을 열어주는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환대는 위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난민 문제로 유럽이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대의 실천은 언제나 도전을 던지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견딜 힘, 혹은 공동체 내의 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대를 가지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종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유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적 의미에서 환대는 어떤 것인일까요? 현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면에 깔린 신학적인 전제는 다를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물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언급했듯 환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원한 사랑의 계시이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흥미롭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봅니다. 계시가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고유한 특수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라고 할 때 그분이 계시한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질문과 우리는 씨름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계시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사랑이십니다. 영원하신 사랑이

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환대하고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인간을 환대하고자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성서를 보면 온 민족을 향한 교회의 사명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시고 그 환대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환대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우리를 환대하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환대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의미 자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성육신은 이 포용과 용납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참여하는 결정적 관점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의 역사 전체를 조망해 본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실제 망해가는 옛 영광의 도시 로마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작인 『신의 도성』에서 현상 이면에 역사를 끌어가는 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는 역사에는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각각 이룬 두 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아벨의 후예들이 만든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가인의 후예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만든 지상 도성이 있습니다. 아벨의 후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가인의 후예들은 눈에 보이는 도성을 만듭니다. 두 도성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역사에는 두 가지 사랑이 갈등 상태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저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자신의 두려움을 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는 표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타자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

즉 나는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 역시 언제라도 나에게 공격 혹은 복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도시도 만들고 풍요롭게 살지만 동시에 나와 남을 나누고 타인을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를 근원적으로 인간 죄성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타자를 대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비가시적 성을 쌓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속에 있는 갈등을 흥미롭게 제시합니다. 한쪽에는 가인의 후예들, 즉 폭력으로서 타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아벨의 후예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처럼 용납과 용서와 화해와 환대를 삶의 기본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 속에서 타자에 대한 환대가 하나님의 뜻이며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성육신이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환대와 적대라는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고, 이러한 역사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실제 우리가 환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이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 환대의 관점에서 본 삼위일체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환대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교리, 즉 삼위일체론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지금껏 많은 신학자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창

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많이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 둘로 나눠서 보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구원의 무대를 만드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드라마를 펼친 것,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설명방식이지만 창조를 마치 열등한 은혜처럼 보는 신학적인 상상이 특별히 개신교에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실천 모두를 철저히 삼위일체적으로 보자는 신학적 시도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각 위격의 사역이 곧 철저히 은혜의 사건이자 환대의 사건임이 보여집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 피조물에게 존재와 공간을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영원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자족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밖에 타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와 공간을 허락해 주신 사건이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론에 등장하는 ‘아무 조건 없이’라는 문법이 창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무로부터 창조는 성부가 전면에서 나서는 환대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성자가 성육신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는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성부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자는 인류의 대표로서 성부 옆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이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자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즉 성자의 구원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옆에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환대의 사건입니다.



또한, 성화와 완성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성자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위한 교제의 자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라는 공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창조와 구원과 완성 모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시고, 각 위격의 사역이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론을 풍성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환대라는 것이 단순히 실천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개념임을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모두가 우리를 환대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창조 구원 완성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환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모두가 환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령을 환대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신적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를 환대의 테이블로 들어 올리실 뿐만 아니라 환대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환대가 철저히 은혜의 문법 속에 있음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환대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영원한 삼위일체의 관계가 우리를 향해 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환대를 보자면,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상호적 관계

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환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 되는 게 가능하거나 할까요?

### 주인과 손님의 자리 바꾸기

환대는 주인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노력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환대는 손님만이 아니라 주인의 삶도 풍성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인이 초청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손님에게 환영받는 경험을 할 때 주인과 손님의 권력 구도가 깨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손님을 환영했는데 손님이 주인의 인격을 용납해 줄 때 주인 또한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환대받는다든 근원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베푸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아들여진다는 이 경험이 인간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환대하시는 주인으로, 잔치상의 주인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을 찾아오는 손님으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의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도 내가 문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환대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환대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오시는 분이라는 묘사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손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환대받는 자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환영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환대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환대받는 자도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역할을 바꾸는 역동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상호순환적으로 사랑과 환대의 역할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전통적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달리 말하면, 삼위일체론은 자리바꿈의 자리 교리입니다.

환대하는 자와 환대받는 자의 뒤바뀜은 환대의 영이

신 성령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둘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말합니다. 성부는 사랑하는 분이요 성자는 사랑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이뤄지려면 성자가 다시 사랑하는 분이 되고, 성부가 성자의 사랑을 받는 분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령이신 사랑이 끊임없이 오가며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풍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 선물로서 사랑이 성령이십니다. 기독교 문헌 속에서 성부와 성자를 사랑으로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성령은 사랑의 끈 혹은 사랑의 불꽃으로 묘사됩니다.[그림 3]

그렇다면 이러한 상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환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환대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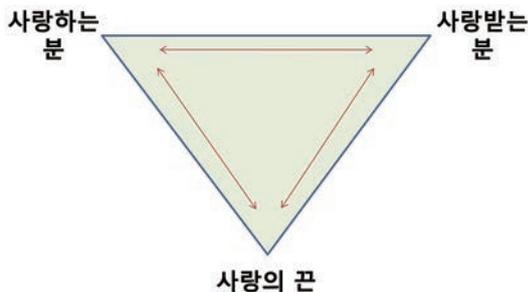
죄인이요 피조물로서 삼위일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

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할지 모를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성자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로써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즉 성자가 성부를 다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부를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를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성부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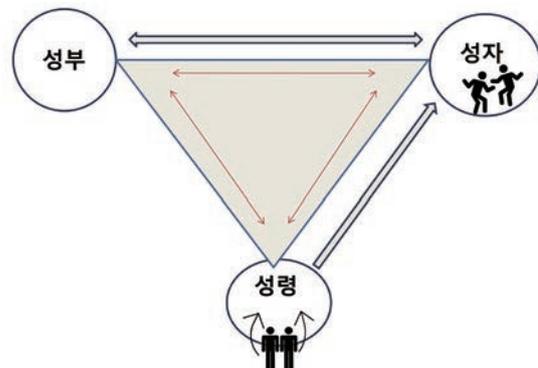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즉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조물이나 죄인이 받는 대우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단순히 환대하는 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받고자 하시는 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환대에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삼위일체론과 사랑의 유비 (그림 3)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엡 2:22) (그림 4)





### 환대의 영이신 성령

성령은 어떤 분인지, 환대의 영이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분의 자리바꿈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기쁨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영원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만 서로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좋은 기쁨일까요? 완전한 사랑일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완전하신 하나님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나눔의 교제는 완전한 기쁨을 만들어 냅니다. 그 기쁨은 타자에게도 흘러보내고 싶은, 타자를 참여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혹은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의 기독교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면, 그 사랑은 본성상 자기 외부의 타자와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기쁨의 교환, 사랑의 교환이 일어나는 삼위일체론이 환대 신학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환대 사역은 삼위일체 교제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기쁨을 나눠가지는 것에서 정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대의 신학의 기본 문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랑 혹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삶 속에서 환대하는 자로 빛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성령론적 함의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 담대함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께서 우리를 환대의 경험에 노출하시면서 우리에게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공동체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이기도 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우리에게 오셨기에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그렇기에 성령은 우리를 개인으로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환대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환대 신학이 왜 삼위일체를 기초로 하는지, 왜 성령론적으로 확장되고 성령이 환대의 영이라 불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림 5]는 말라가 대성당 사진입니다. 말라가가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 이슬람이 거의 떠날 정도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때 항전했던 성과 점점 증축된 교회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기독교와 이슬람을 떠올리시겠지만, 앞에서 성육신이 역사를 보는 렌즈를 바꿨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질서와 지상 도성을 가리키는 질서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타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배제, 폭력, 혹은 자기 보호를 위해 쌓은 성이 있고, 또 여기 세상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설교와 성찬 그리고 선교를 통해 환대의 질서를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라가의 대성당과 성벽을 보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대립을 상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도시에서 성과 교회의 공존은 타자의 낯섬을 배제하고 경계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려는 하나의 흐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여기서 실천하려는 다른 흐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 역사에 함께하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 그림 5 말라가 대성당

우리는 타자에 대한 두려움, 자아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데서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칭의론을 단순히 개인이 아닌 역사에 대한 교리로까지 확장했던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대는 이웃사랑의 실천 방식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웃사랑으로 대체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까지 넓은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이 환대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에서 삼위일체론적으로 환대를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끝없이 자리바꿈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삼

위일체론이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보자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대접하는 자와 대접받는 자의 위치 고정은 환대의 본성을 변질되게 합니다. 그렇기에 환대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성령은 사랑의 끈으로 계셨습니다. 종말 때까지도 성령은 사랑의 끈이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끈이신 성령 안에서 환대의 모험을 떠나라고 요청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발표

# 환대

● 권주로 | 프론티어스

이슬람권 선교를 준비하면서 무슬림의 환대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우리의 환대문화가 있기에 그들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필드에 도착하고 수도에서 공용어 습득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의 사역지가 될 8~12시간 떨어진 서아프리카의 종족 마을들을 수도에서 맺어진 인맥을 통해 자주 방문하곤 했습니다.

초임 선교사로서 수도에만 있다가 처음 시골 종족마을에 방문하기로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지구상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인 그곳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긴장가운데 기도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현지친구에게도 제가 염려되는 것들을 최대한 전달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한 가운데 드디어 도착한 시골집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은 저를 마치 외교 업무차 타국을 방문한 귀빈을 대우하듯 열렬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짐이 무겁다며 빼앗듯 대신 들어주고, 샤워할 수 있도록 물도 한 양동이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씻게 될 지린내 가득한 허술한 야외화장실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누군가 보초를 서 주었습니다. 최대한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그렇게 샤워가 끝나고 나오자 온통 모래투성이인 마당 한 칸에 그곳에 안 어울리는 비누 향이 가득한 하얀 커버를 깐 스펀지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고 저녁 식사 전까지 그곳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로마 시대 황제가 썼을 법한 금색 도금이 벗겨진 이가 나간 황금 잔을 준비한 후, 얼음 구하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시원한 탄산음료와 함께 고기요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이슬람 명절 때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열악한 환경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결했지만, 그들이 저에게 해준 환대에 감동했고 감동한 만큼 저의 주머니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 이상의 재정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문이 이어졌는데, 그들은 직접적인 어떤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점점 첫날 받았던 환대의 느낌은 없어지고 뭔가 시설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나러 간 사람들과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이것이 진정한 환대인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계산적 행동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율법으로 형식적인 느낌의 환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은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러 간 그곳에서 마주한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막내가 18개월 되던 때, 수도에서 공용어 언어습득 시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골 종족마을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본딩'이라는 방법을 통해 마을로 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와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최소한 물품만을 챙긴 가방 3개를 들고 6주간 시골 현지 가정의 방 한 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변칙이는 스파크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한 가장 깊은 유대를 경험하기 위한 저희의 시도였습니다. 저희 사역지는 평균 40도 이상의 고온과 아주 더울 땀 5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곳입니다. 집안은 너무 더워 밖에서 잠을 자는데, 흠뻑 젖은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시멘트 벽돌 집의 천장은 양철지붕이었고 창문과 문이 없었으며, 집안에 화장실과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고 심지어 쥐와 각종 벌레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수도에서 타고 다니던 차량도 놓고 최소한의 물품만을 챙겨 왔기에, 저에게 익숙한 음식과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 중 저희 가족이 누리던 가장 큰 사치는 샤워할 수 있는 양동이 한 개의 물과 한 병의 코카콜라였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 가난한 집주인에게 단기월셋방을 얻어 살고 있는, 폭삭 망하거나 사연이 있어

서아프리카 시골마을까지 떠 밀려온 중국인 가족으로 비취질 만큼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그곳의 이웃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6주가 끝나고 장기 거주를 위해 집을 옮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6주간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지면의 한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떠나기 마지막 날 금전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낸 가족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 밤이 늦도록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종족언어 습득시간으로 보내는 동안 저희 막내를 돌봐주던 아주머니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짧은 시간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들 속에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긴밀한 유대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팀 리더에게 본딩했던 집과 동일한 환경을 가진 집과 이웃과 같은 담장 안 마당을 공유하는 집을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본딩을 했던 집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또 다른 현지인의 집에서 1년 동안 본딩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예의를 배우고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도권이 저희 가정에게 없었고,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이 깨어졌고, 혹 내면에 작용했던 그 우월감은 그곳에선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쳇말로 그들이 “갑”이고 저는 “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은 그들 가운데 저희 가정을 받아들여 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철마다 때마다 자신들의 먹을 것과 필요한 것

들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들 한가운데 존재했기에 그들이 가진 단단한 공동체성은 우리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을 노리는 도둑과 강도로부터, 그리고 위협이 될 수 있는 낯선 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고, 더위로 일 년 중 8~9개월을 밖에서 잠을 자야 했음에도 그들 곁에 있었기에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웃집 아이들의 생일잔치에 초대받고 또 허물없이 놀았습니다. 서로의 수준이 비슷해지니 그전에는 외국인으로 관심 없었던, 멀기만 했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며 때론 실수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함께 울며 웃으며 그들의 문제에 몰입하여 진지하게 그 문제들을 대하는 저를 발견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형편의,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자리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또 다른 차원의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팀에서 나와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사역하는 국가의 내무부에 지역개발 협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전에는 매개 역할을 하는 누군가와 함께 손님으로 환대를 받으며 마을로 진입했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새로운 마을로의 정착을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정체성이 강한 공동체 중심적의 폐쇄적인 종족마을 분위기상 낯선 외국인이 자신의 마을에 거주해야 할 때, 그들의 저항은 예상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탐을 위해 방문했던 모든 마을의 유지와 원로, 그리고 지역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은 왜 제가 이곳에 오는지 그 이유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환대의 문화가 있기에 형식적으로 인사해 주고 환영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야기가 더 깊어질수록 그들은 제게 “우리 무슬림 형제를 도둑질해 가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주해서 사는 건 너의 자유지만 우리 마을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쫓겨날 것이다,” 등의 말들을 전해왔습니다.

8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마을의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한 마을 원로의 허락을 받아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열매마을에 지역개발 센터와 사택을 건축했습니다. 개관식을 열어 마을의 주요인사들을 초대했습니다. 개관식 행사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자는 요청에 의해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맘부터 마을 원로들이 저를 향한 의심 속에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맘은 당연히 자신의 종교적 생각과 식민 지배라는 아픈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한 기독교 선교사로 저를 인식했고, 우리의 무슬림 형제를 도둑질하여 빼내가지 말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이곳에 왔는지 하는 식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답할 차례가 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꾸란도 읽어보고 이슬람의 역사도 배웠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이슬람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적 조상들은 ‘딤미’를 두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제 활동을 보지도 않고 저를 배척하려 하십니까? 저는 제 어린 아들과 아내와 함께 보낼 학교가 없어 홈스쿨을 하면서라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삶을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무릎을 치면서 제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가정을 향한 의심이 걷히지 않은 가운데 저희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에 심한 화상을 입은 내지 마을의 아주머니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물에 빠져 죽을 생각까지 하다 조금 큰 마을에 가면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을 주술사에게 갔는데, 코팅을 해야 한다며 자동차 폐 오일을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오염물질을 다 닦아내고 비상용으로 챙겨온 화상용 거즈와 연고 등을 한 달간 매일 발라주며 보살펴 주었고 깨끗하게 나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건넌마을 어린아이가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허반신 전체가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이 없는 저희 마을의 상황상 아이를 1시간 떨어진 병원으로 급히 옮겨 입원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주일 후 아이는 퇴원을 했고, 문맹 인구가 많다 보니 약을 잘못 써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에 약 쓰는 법도 알려주고 아이 상태도 볼 겸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환부에 덮여 있던 깨끗한 거즈는 없고 새까만 무언가가 덕지덕지 발려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오자 마을의 주술사가 와서 저 외국인 말대로 했다간 이 아이는 죽게 될 테니 자기 말을 들으라며, 주술사식의 민간요법을 알려주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 제물로 희생시키고 그 내장에 있는 배설물을 환부에 바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새까만 것의 정체는 양의 똥이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장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 노파가 그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자 그 부모님은 아이를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파가 바로 주술사였습니다. 이런 소란한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능력대결이

라도 해야 하나?” 별생각을 다하면서 속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정면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고, 제 아내가 아이 엄마에게 가서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혜로운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 엄마의 허락이 떨어졌고, 아이를 병원에 옮겨 치료가 가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저희 지역개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부부에게 당분간 누가 주는 음식, 음료수 등을 받아먹지 말고, 주변을 잘 살피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 신비주의 영향으로 진의 역사에 민감하고 그에 따른 주술과 흑마술 등으로 주술사와 종교지도자가 수입을 얻고 많은 사람이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주술사의 행동에 반기를 들고 주술사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으니, 어떤 방법으로도든 복수를 할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복수는 이곳에선 아주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새벽에 이 땅에 흐르는 어둠과 사탄의 견고한 진을 놓고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한 두 달 쌓이면서 저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고, 직원들을 불러 모은 회의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주저함 없이 선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지의 상황을 알기 위해 100곳이 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 사역을 통해 마을에 아픔과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지역개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한국의 후원자들과 연결하고,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 센터에 도서관을 만들어 책을 읽히고, 프랑스어를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치원에 태블릿을 이용한 기초 산수 수업을 제공하고, 고용불안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젊은이들을 모아 소자본 비즈니스 훈련을 시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등 많은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눈 녹듯이 저희를 향한 의심이 조금씩 견혀가며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센터와 집으로 현지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자기 삶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남녀노소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을 촌장님은 우리 기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부녀자들 자립을 위해 농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자 2헥타르의 땅을 저희 마음대로 쓰라고 주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저희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제게 마을에 중요한 행사에 초대장을 보내 참석을 부탁하고, 여기저기에서 저희의 현지 이름인 ‘삼바’와 ‘쿰바’를 부릅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어진 선이 사라지고 그 경계가 희미해졌는데, 그렇게 저희가 진정성으로 선을 넘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 후 그들이 우리의 선 안으로 들어오며 우리를 한마을의 주민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작지만 그들의 공간, 우리의 공간을 서로를 위해 열어주는 환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환대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한 시각장애인에게 오토바이를 지원해 주고, 오토바이 가격만큼의 돈을 모을 때까지 매주 일정 금액을 가지고 센터로 오게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으나 계속 격려하고 방문하여 가족들의 상황을 챙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오토바이 한 대 가격만큼이 모아졌고,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오토바이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베푸는 환대와 진정성을 받은 그가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노력함으로써 그 열매로 값은 것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환대는 열매를 낳는데,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환대로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떤 자격과 기대함을 떠나 인간과 인간이 만나 웃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잠시라도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란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서 “원망없이 하다”라는 구절을 어떤 영어성경에서는 Without Grudg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rudge’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뜻이 있지만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대란 상대방의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의 기대치와는 상관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환대를 받으셨고 또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신적 차원의 환대를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창기,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방인, 장애인,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자격 없는 자들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리셔서 인간이 되셨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 주셨습니다. 때론 그 집에 머물며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마시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시면서 그들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베푸셨고 그들의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환대를 똑같이 할 수 없고, 실수도 하겠지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기까지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가 경험한 감정과 상황을 스스로 인간이 되어 겪으셨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까지 알고 계신 분이 기꺼이 저를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신적 환대입니다. 제가 베푼 환대는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들과 나를 구분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아가려 했던 깨어짐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받은 환대는 어떤 특별함이 아닌 그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 저를 봐주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열어주고 받아들여 주었던 이들이 내어준 그들의 공간에 머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에 예수님처럼 성육신할 수 없고 신적 환대를 베푼 순 없지만, 서로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환대가 아닐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6-48)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를 환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적인 환대는 무슬림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환대는 익숙함과 우리의 기대치와 계획을 넘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우리를 깨어 내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토의 질문

**Q. 필드에서 무슬림들에게 우리의 깨어짐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떤 환대를 경험했습니까?**

- A1. 처음에 튀르키예에 갔을 때 전혀 모르는 나라지만 집을 얻는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의 아줌마들이 극진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첫날부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음식 가져왔고 우리 가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관심을 보여주어서 환대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의 환대가 아니라 공동체적 환대가 무슬림 문화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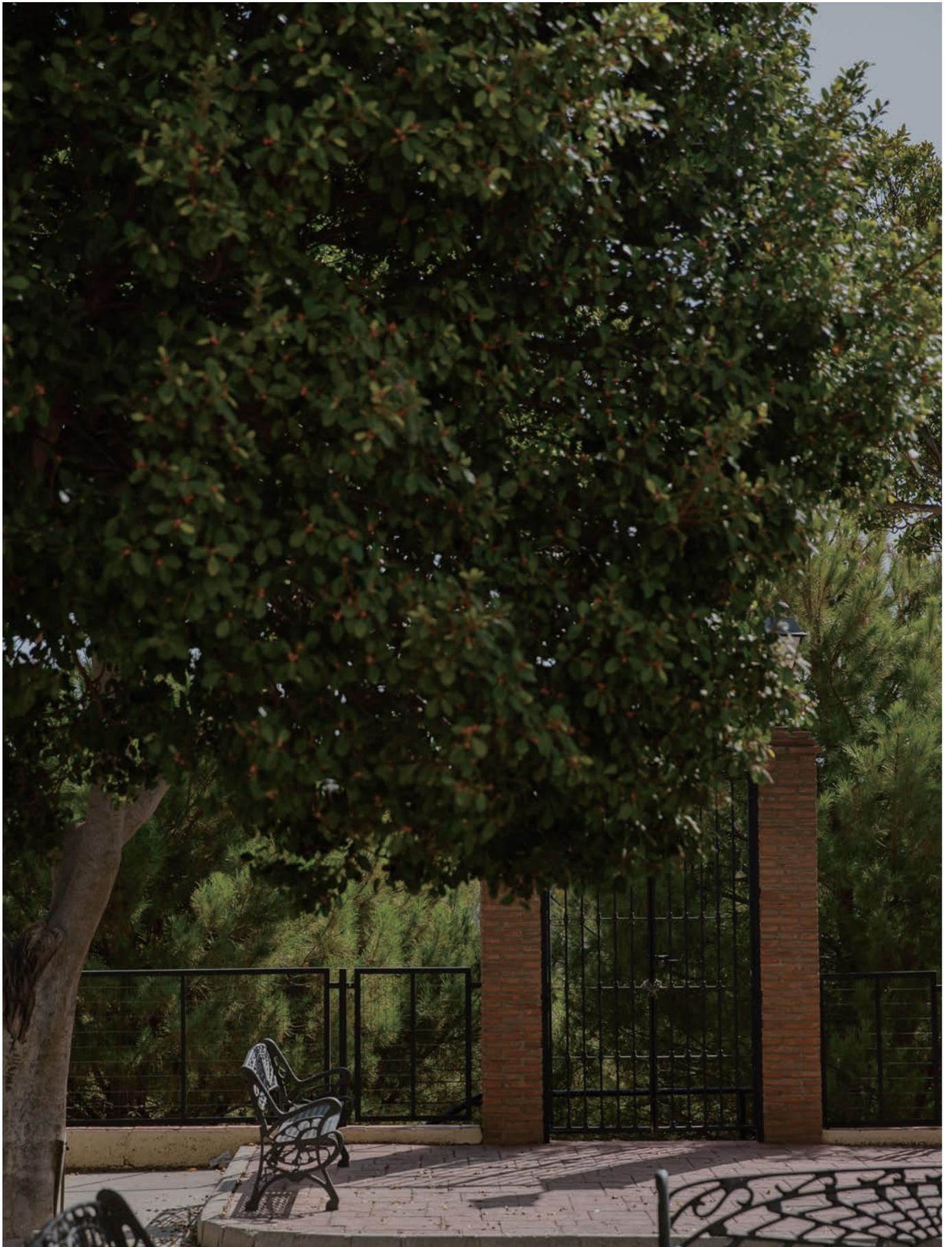
- A2. 현지인 친구들이 자고 가라고 하면 잠자리가 불편해진다. 방 2칸인데 자고 가라고 하면 매번 거절하기 힘들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불편하다. 이란, 아프간 문화는 집에 머물게 해줘야 하는데 난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니 그 환대의 마음이 부담된다.

**Q. 우리는 각각 다른 환경의 필드 상황에서 어떻게 더 깊은 환대를 경험하고 또 베푼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필드 상황과 함께 나눠주세요.**

- A1. 환대를 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 넘는 베푼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환대를 중요시하다가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발견된다.

- A2.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는 상황도 있다. 사역이 이제는 주는게 아니라 친구로서의 필요함을 채우는 관계로 가게 된다. 적대감 없이 환영해 주는 단계가 오니까 감사하다.

- A3. 환대인줄 알았는데 상업적인 관계인 듯하다. 재정적인 지원을 난민에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어렵다. 단순히 사역의 원칙을 넘어서서 복잡하다.



## 1. 무슬림 난민 현황

현대에 접어들며 많은 이슬람 국가가 내전과 각종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다수의 무슬림들이 고향을 떠나 떠나면 타지로 가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경우 수백만의 사람들이 시리아를 떠나 주변국과 유럽, 북미권으로 피난길에 올랐고, 시리아 내에도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자국 내 타지방을 전쟁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리아 내전 이외에도 파키스탄과 아프간 지역, 예멘, 이라크, 레바논 등 국가 치안 부재로 인한 내전 및 준 내전 상황에 처한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도 국외로 떠나는 난민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등의 위협을 피해 타국, 타지역으로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 대부분은 1차적으로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육로로 연결된 주변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국으로 몰려온 난민 중 상당수는 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많은 이유로 인해 또 다른 나라로 난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사헬 지역 이슬람권 국가들에선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럽지역으로 밀항을 떠나는 사람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장 극단적인 예시 중 하나일 뿐, 세계화를 통해 하나의 지구 경제권이 된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여러 제3세계 무슬림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가히 엄청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쟁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인해 타국으로 떠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타지로 이동한 사람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난민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를 타의적 난민이라 이름을 붙인다면, 후자는 자의적 난민이라 할 수



첫째 날/ 발표

# 환대의 관점에서 난민의 이해와 접근

● 주나힘 | 프론티어스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타지로 나온 고단한 나그네의 삶, 그로 인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들의 마음 상태는 자의적 난민이나 타의적 난민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입니다. 타의적 난민만이 아닌 자의적 난민들 또한 '난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무슬림 난민의 수는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 2. 무슬림 난민 이해하기

이런 자의적, 타의적 무슬림 난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낮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종교적, 문화적으로 씨족 중심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던 이들 대부분은 본국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며, 그들에게 삶의 정체성을 제공하던 공동체에서 분리되

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방 매체들을 통해 강하게 인식된 무슬림의 부정적인 이미지, 테러와 극단주의 세력의 잠재적 동조자라는 인식은 타국에서 그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슬림 난민들을 우리 이웃으로 맞이하게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을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참고해 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개와 같은 자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금 비이슬람권 사람들이 무슬림에게 가진 부정적 시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선 일부러 제사장, 서기관과 함께 이웃의 후보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고, 중국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난당한 자의 이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의 후손. 그 정체성과 세계관에서 출발한 무슬림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처럼 애증의 관계임과 동시에 우리의 가장 유력한 이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3.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 안전, 일자리 등을 찾아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무슬림 난민이라는 이 부담스러운 이웃들은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형태의 선교대상자입니다. 땅끝 선교에 있어 마지막 관문처럼 버티고 있는 이슬람 세계. 이제 우리에게 남은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은 바로 이 무슬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여러 상황과 이유를 통해 우리 옆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그네, 어려운 이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필요한 것은 단 몇 걸음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여전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 멀리 해야 할 불편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할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향한 환대의 손길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신명기 10:19)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브리서 13:2)



성경 친구약의 말씀 안에서 손님과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명료합니다. ‘그들을 환대하라.’ 심지어 최후의 심판 날, 예수님께서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구분 짓는 기준점 중 하나가 ‘나그네를 돌보았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명령의 무게가 어느 정도 인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 토의 질문

**Q. 난민 선교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 A1. 난민 자체가 이동과 유동성이 많으므로, 성장단계 레벨까지 갈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A2. 한국 사회에 이슬람 포비아, 난민 공포가 있었다. 국내 이슬람 사역의 장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현실이다.
- A3. 우리 사회는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예 따라 사람을 대접하고 있다. 파키스탄 경우, 청소부 등 종의 개념이 있다. 이들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계급을 나눈 환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A4. 사역자의 수고 없이 복음의 열매는 없다. 이 정도 도와주면 화답하듯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위험하다. 돈 주는 일은 쉽다. 그러나 같이 시간을 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기본적인지만 힘들다.

**Q. 난민 선교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 A1. 우리가 동정심으로 난민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 때론 난민들을 보는 우리의 태도가 장애 요소가 된다.
- A2. 이란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는다. 이란 사람들이 아프간 집에 가면 밥을 안 먹는다. 더럽다고. 이란 사역자는 안 먹는데 한국인 사역자도 안 먹네? 아프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미안했다.
- A3. 나는 가급적 물질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진이 났을 때는 위로만으로는 어려웠다.
- A4. 구호품을 주고 받는 것에 익숙하여 존중이 무너진다. 환대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동등한데, 환대하는 자의 태도가 무너지면 한계를 느낀다. 우리의 기준으로 환대를 베풀고 있는게 아닐까.

'23 Malaga Gathering  
Hospitality with the Holy Spirit:  
Responding to City and Wilderness

둘째 날 ● ●



# 예수님 발치에서

● 주히바 | OM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손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그 시대, 문화에 부응하는 여자로서의 일을 하는 한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자세에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문화에서 발은 가장 명예롭지 못한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온전히 그 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준비할 것들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끝내야 할 일들로 걱정이 가득하여 끝내 예수님께 나아가 불평합니다. 발 밑에 앉아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마리아의 자세와는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불평의 얼굴과 소리로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에게만 몰두했습니다. 본인이 완수해야 할 일들에 그녀의 마음은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르다가 한 말에 유의하십시오.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심지어 마르다는 예수님을 조정control하는 듯합니다. “Tell her then to help me.”

마르다의 ‘섬기는 일’은 그녀 자신에 대한 집착에 근거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그분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종종 내 생각과 기준, 그리고 잘 하고 싶은 열심에 치우쳐 마음의 분주함과 조급함, 때론 열등감, 좌절감, 근심 그리고 불평 같은 시끄러운 마음의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발 밑에서 겸손히 주님을 우러러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저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갑니다.

“oo야 oo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내게로 와서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 나눔과 기도

내 마음 속에 지금 일어나는 시끄러운 충동들은 무엇인가?  
내 의로, 내 기준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필요한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2)

● 김진혁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 III. 환대의 인간론

지난 시간에는 성서와 교회사 속에서 환대가 어떤 식으로 주목받다가 사라지게 됐는지, 왜 다시 환대가 중요해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환대를 적절한 신학적인 맥락 속에 넣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론, 특별히 성령론 속에서 환대를 보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환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환대를 책임 있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학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고, 이후 타락해서 그 완전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언어로 '원의의 상실'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환대에서도 어떻게 어려움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기독교 신학의 난제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자이고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나올법한 질문은, 하나님은 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이슬람과 기독교 신학교사의 논쟁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복잡한 방법을 쓰실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라는 공간을 구원을 펼치기 위해 쓰신다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특징이자 난점입니다. 복잡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비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매체인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신지 알리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는 말 많고 탈 많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인 두 가지, 역사와 공동체를 가지고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놓여있습니다.

역사와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인간이 있습니다. 피조물 이기에 유한하고, 죄가 있기에 욕망이 뒤틀려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가지고 환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론과 실천의 벌어진 틈에서 계속 긴장 속에 살겠다, 혹은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창조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그 문제에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인간은 낯선 이를 환대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실 때 과연 우리는 환대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근원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 그림 1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현대의 공동체라 불릴 수 있는 두 곳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병원에 폭격이 떨어져 500명 이상이 죽은 비극적인 장면과 교회에서 무슬림 난민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보호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림 1] 과연 우리는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환대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경계마저 넘어선 환대가 정말 가능할까요?

### 선교적 테오시스(theosis)

신약학자 마이클 고먼은 요한복음 전체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흥미로운 강연의 주제로 선교적 해석학이라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을 세 주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랑이신 하나님은 선교적이시기도 합니다. 선교mission가 '보내다'라는 라틴어 missio에서 나왔듯 사랑이신 하나님은 보내시는, 즉 선교적인 분이십니다.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이 세상을 정죄하거나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책이 성경이라면, 성경 전체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역사 속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온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함이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 역시 너희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마이클 고먼이 요약한 성경에 나와 있



는 선교적 해석학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볼 때 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다른 말로 하면 ‘성자와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신 데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고먼은 후자를 고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구원론적 개념인 신화theosis라고 불렀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낯선 이 신화 개념이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는 한 마디로 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는 개신교회의 정서상 신이 된다는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신화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구약을 보면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양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양자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는 표현도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적인 무언가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처럼 대우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로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성자의 영광을 선물로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지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무언가(성품이나 영광)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궁극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6세기 서방교회 내 분열의 기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언어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습니다. 가톨릭과 대립하며 종교개혁자들이 이전의 구원론과 자신들의 구원론을 구별하기 위해 칭의론의 언어에 집중하며 신화의 언어가 감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화라는 구원론의 내용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칼뱅이 가톨릭과 대립하면서 개신교 구원론을 설명할 때 신화 개념 자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직접 해설하는 설교, 주석 등에서는 신화라는 구원론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화 개념과 연계된 그리스도와의 연합, 양자됨 같은 용어는 개신교 신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용어들은 바울과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버릴래야 버릴 수 없습니다.

마이클 고먼은 개신교가 잃어버린 신화에 대한 언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선교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상호내주perichoresis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적 생명 안에 먼저 참여합니다. 그런데 Life는 우리말로 생명도 되지만 삶도 됩니다. 삶이 말과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듯, 다른 누군가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변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적 생명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이 됩니다.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하시는 일에도 참여하냐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성자 안에 머무름으로써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를 선교적 언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선교의 가장 중요

한 신학적 전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고먼은 선교적 해석학의 핵심을 요한복음 15장의 언어로 Abide and Go(머물고 가라)라고 요약합니다. 신적 생명 안에 참여하고 있어라, 포도나무 가지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요 15:4), 머물고 있어라. 상호내주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보내집니다. ‘머물고 가다’ 이 두 단어가 알려주는 우선순위와 중요도의 위계가 무엇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림 2

[그림 2]는 제가 낮에 말라가 박물관에서 찾은 세레대입니다. 세비아에서 발견 되었는데, 레콩키스타 시대에 만들어진 포도나무 가지 모양의 장식이 두드러진 세레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되는 사건이기에 이런 식으로 포도를 세례대에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대는 세라믹이라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발달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라믹은 돌보다 빨리 제

작할 수 있고 당시 유행하던 재료이기도 했기에 이러한 특별한 세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대에서 세례를 받으며 사람들은 기독교의 세례와 고대 종교의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톨릭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트레نت 공의회에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세라믹으로 세례대를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당시 말라가의 주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세례대를 다 파괴했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세례대가 세비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세례대에 포도나무를 그려놓고 세례를 주는 중세 교회의 흔적입니다.

이제 선교적 해석학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거하는 것, 접붙이는 것, 그러므로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는 접붙임 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 환대와 하나님의 형상

선교적 해석학이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인간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환대에 대한 관심이 난민 문제와 함께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칼뱅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가지고 환대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주의는 두 가지 이유로 환대 신학이 발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신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예정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저주받을 건데 지옥 갈 건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정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둘째, 이러한 예정론이 나오게 된 중요한 신학적 배경은 전적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존엄해야 한다는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실제 교리적 순수성에 대한 추구와 하나님 형상의 파괴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 형상에 인간 존엄을 위치하여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반대 효과를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대교회부터 있던 신학적 인간 이해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간론이 현대의 신학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교회와 오늘날 동방정교회 신학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개념적으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와 헬라어 번역 구약 성서 모두 형상과 모양을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형상과 모양이 다른 단어라도, 이것이 두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실체라 보았고, 이는 타락 때 희망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대부분 개신교 신학과 교회는 이러한 해석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번역 성경, 라틴어 번역 성경을 쓰는 초기 교부들은 형상과 모양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이후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만 등장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모양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지만 인간이 구원 혹은 종말에 도달하게 될 목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의 종말론적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아주 특별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중간에 죄라는 간섭

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인간의 존재론적 규정은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궁극적으로 성자처럼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셔서 **missio** 인간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그리스도처럼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온 우주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양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바울 서신을 보면 최소한 온 우주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에 뒤따라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도 너희가 신처럼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인간이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된 인간에게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목표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형상에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대표적인 사역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접붙여지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신처럼 만들고 싶어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자연의 화해, 더 나아가서 영혼과 시간의 화해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개인의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 속에 보내졌듯이 교회도 역사 속으로 보내지고, 교회의 보내짐 속에 우리의 선교가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짐과 선교의 핵심에 하나님의 환대가 놓여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완전한 상태에 있다가 파괴되고 그 상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인간론으로는 환대가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환대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화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화해의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인류를 위치시켜 놓았다는 것이 하나님 형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신화 교리가 함께 환대의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화 교리가 말하는 신화의 목표는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천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인간의 능력, 우월성으로 이 세상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타자입니다. 자연을 우리의 욕망이나 필요를 위해서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습관이 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에 대한 다른 이해로 보면, 자연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대로 우주를 낙원이자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열 성전이 되게 하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동방정교회 신학자 블라디미르 로스키는 '인간은 자신 안에 낙원을 지니고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그 낙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타자를 만나는, 그 낙원 속으로 타자를 초청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고 그럼으로써 그 생명을 나눠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낙원이 현실 속에서도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장 27절부터 모양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만 남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모양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하여 도달할 목표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인간과 역사를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합니다. 비록 형상과 모양이라는 구분을 쓰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도 이러한 인간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초기교회의 인간론과 초기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환대의 실천 사이에 긴밀한 결합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 환대의 인간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칼뱅이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히 잃었지만, 형상위 완전히 산산이 조각났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살고 있고, 일그러졌지만 나뉠 낙원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타자는 지금 우리에게 본질이 숨겨진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나는 타자를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이웃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신비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를 '타자를 신비로 보지 않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조종하려는 죄'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신비입니다. 서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꿰뚫고 조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 언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알아야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에 가장 극렬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인간의 탄생은 환대를 받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태어나는 사건은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에게 환대받는 사건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해 온 세계로부터 내가 환대받는 사건입니다. 탄생하고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받아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에게 용납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으로 환영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신생아를 통해 주변 사람들은 새롭게 하나님 형상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은 경이로운 환대의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타인의 얼굴을 봅니다. 부모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 웃습니다. 환대 철학을 전개하는 철학자들은 환대의 자리로 타인의 얼굴을 강조합니다. 옷, 장신구, 지위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인격을 그 자체로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상호작용에 우리가 응시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가 정해집니다. 그렇기에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들 얼굴을 가려 인간성을 지웁니다. 얼굴을 맞댄 상황에서 타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인간성을 잃은 비극적 사건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환대의 철학을 전개하는 많은 사상가가 환대가 일어나는 자리로서 얼굴을 주목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뿐

만 아니라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환대의 자리가 됩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 이콘이라는 특별한 종교 예술을 통해 사람의 얼굴을 묘사합니다. 이콘의 인물은 얼굴에 표정이 없고 대부분 비쩍 말랐습니다. 그것은 타자의 얼굴을 그 사람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 현대 이콘은 아담의 창조를 그린 것입니다. [그림 3]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같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자 인간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모양으로 그립니다. 제가 이 이콘을 좋아하는 개인적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를 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계와 타인들을 환대하고, 세계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표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고대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조나단 색스라는 랍비는 법궤 위에 그룹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장소에서 말씀이 들린다’고 해석했습니다. 문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들리는 장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환대의 장소라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성서적 주제는 환대의 장소에서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환대 인간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3 ▲그림 4

인간이 성령을 받는 존재라고 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약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을 받았던 존재는 마리아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 말씀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계시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IV.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서 환대

[그림 4]는 말라가 대성당의 문에 조각된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말라가 대성당은 모스크 위에 지은 성당인데, 이슬람과 기독교의 큰 차이 중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말라가 성당에 수태고지가 조각, 문, 회화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령이 마리아 위에 있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마리아론은 가톨릭의 흔적이라며 많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마리아론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바까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인간됨의 비밀이 계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 환대의 실천이 만들어 내는 긴장

지금부터는 인간의 본성에 이어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곤란함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간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대치될 때도 있고 때로는 현행법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참고할 만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대를 실천하려 할 때의 어려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능성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하는 결정과 결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경계와 개방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와 개방성 사이에 긴장이 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손님과 적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의도된 적일 수도 있고, 손님인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증오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말씀과 손 대접 사이의 긴장입니다. 선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변화하는 걸 보고 싶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환대를 베풀면 그 환대의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어려움과 관련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돌봄과 손님에 대한 배움 사이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면, 손님들을 접대하다 보면 당연히 가족에 대한 돌봄이 소홀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우선시하고 손님을 돌보면 손님들이 영원한 객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환대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다른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환대의 사역을 함으로써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 책임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여러 긴장 속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맥락에서 ‘책임’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로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책임에는 어떤 일과 관련하여 누군가 판단을 받거나 상을 받는다는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오늘날에는 고용주가 고용인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네가 이 사업장의 주인인 것처럼 일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서 직업윤리, 공동체윤리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임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책임과 환대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결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환대의 책임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집사입니다. 집사들을 뽑을 때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행 6:3)”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과 환대가 상당히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사용하는 지식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현장의 필요에 맞게 적응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환대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웃기면 웃어주고 짜증나게 하면 울고 이렇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반응response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적절하게proper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쌓아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덕목으로서 반응 능력을 성령의 선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response할지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ability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responsibility이라고 성화론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타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 명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규정이나 의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유를 전제하는 개념이 책임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책임적 자아(H. 리처드 니버)

책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헬무트 리처드 니버라는 미국 신학자의 『책임적 자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니버는 인간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고대부터 현대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목적론적 윤리’입니다. 인간이 의자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다듬고 깎는 것처럼, 인간은 대상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중에 선택과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선하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선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목회자의 선한 목적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리를 잘 알고 싶다면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잘하고 싶다면 설교학을 더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선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대로 오면 많은 도시가 형성되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이 살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내가 나의 의무를 지키고 너도 너의 의무를 지키는 경계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시민으로 이해하는 ‘의무론적 윤리’입니다. 시민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중요

하고 법에 대한 의무,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무엇이 보편적으로 옳은지가 중요합니다. 조직신학 시간에 나는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될 거니까 조직신학은 필요 없다며 계속 가고 판짓하고 있으면 보편적으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있으니깐요. 이때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사람들이 행동하며 학생으로서의 덕성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두 모델이 이제까지 인간의 행동, 인간이 추구하는 바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버가 볼 때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무도 다르고 법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목적론적 윤리에서 추구하는 선끼리 충돌합니다. 니버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모델이 도움은 되지만 예전처럼 유효한 모델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는 세 번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응답response의 윤리’입니다. 책임적인re-sponsible 존재로 인간을 볼 때 기본 질문은 ‘내가 추구해야 할 선이 무엇인가’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모두가 동의하는 바인가’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무엇이 적합한fitting 행위인가’가 응답의 윤리에서 핵심 질문입니다. 무엇이 적합하냐는 것은 개인, 사회, 국가별 상황이 다릅니다.

응답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처럼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신학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따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니면 구체적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위해 이 상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적합한 응답은 적합한 해석을 요구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응답의 윤리를 전개할 때 당면하는 문제는 각자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듯 니버는 인간의 반응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구조화합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특별한 상황에 응답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응답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라는 맥락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응답은 언제나 관계적이고 대화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시간과 역사입니다. 책임에는 역사적인 지평도 있습니다. 내가 이 판단을 했을 때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지평이 없다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은 개인이라는 틀에 갇히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로부터 너를 건져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역

사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며 계속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따라 리차드 니버는 인간의 책임을 분석하며 유일신론 종교에서 인간이 가지는 특성을 절대 의존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의 근거이므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것도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예로 들면,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도 기독교인은 어느 한 정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정치적 이익을 모두 상대화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은 초월적인 실재에 기반하는 것이지 현대사회의 정치 집단, 경제 운동 이런 것에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일신론 중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은 죄와 구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만



들어 내는 공동체와 규정과 문화에 회개와 용납의 여백이 있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혹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인간은 상황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사회와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응답하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종교인은 세 번째 맥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용서 그리고 화해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네 가지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차드 니버가 주는 통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은 단순히 어떤 의무, 우리가 받아야 할 상벌에 대한 조건,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응답이 아닌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역사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절대자에 대한 의존, 그리고 회개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환대가 충돌을 일으킬 때

환대는 좋은 의도로 하지만 공동체의 규율이나 내가 가진 종교적 신념, 현행법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역을 할 때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 경우 환대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대는 여러 실질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곤란한 실천입니다. 이에 대해 본회퍼의 신학에서 '죄를 대신 짊어짐'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회퍼가 히틀러 암살에 모의에 가담했다가 사형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계

속 사람들을 치고 다닐 때 목사가 할 일은 버스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를 벌여서라도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한 말도 유명합니다. 그 이후 본회퍼의 이름은 정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 때 끌어내리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상대에 대한 테러, 암살 등을 정당화하고자 본회퍼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회퍼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본회퍼 신학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와 환대와 관련하여 본회퍼가 줄 수 있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그가 거짓말에 대해서 쓴 글을 소개하려 합니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받아들이는 규율입니다. 후자를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도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명령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경우, 모든 사람은 존엄하기에 설령 살인자라도 나뉘는 존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A를 죽이려고 B가 뒤쫓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A를 몰래 숨겨주는 것은 B의 존엄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C.S. 루이스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거짓말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불러 올 결과는 모른다, 이 거짓말이 더 큰 악을 불러올 수 있기에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유한한 인간이 미래는 모르기에 가능한 진실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사람의 목숨이 달렸거나 하는 선의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따르는 대표적인 사람은 또 C.S. 루이스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 큰 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의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두 번째 입장을 더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인 시도와 같은 확실한 사건이 아니라면, 이쪽과 저쪽에 있는 해로운 것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위험한가 하는 판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계명을 지킬 때도 항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본회퍼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나치 치하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독일 밖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회퍼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위선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나의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경우에는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본회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화해 의지가 드러난 곳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의 화해가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곳, 화해는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구속되지 않은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화해하셨지만,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굴절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해석과 문화적 선입견,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굴절된 형태로 드러나고 우리는 굴절된 식으로 해석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충돌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치 치하 독일에서 생명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종종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처해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서로를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관점으로 관대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굴절된 형태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에, 우리는 충돌된 계명들 사이에서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회퍼의 유작 중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흥미로운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언제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함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피조적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은 다 구체적인 자리에 매여있습니다. 즉,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각 사람이 처한 자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서 진실하냐’ 여부와는 결이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보는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회퍼는 1930-40년대에나 있을 법한 사례를 가져옵니다. 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한 학생에게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다!” 교사가 자신의 아버지에 관해 교실에서 이처럼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진실성은 무엇일까요? 본회퍼는 아이가 “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 그 아이의 위선이라고 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전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처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진실성, 우리 아버지는 단순히 알코올 중독자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진실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회퍼는 각 사람의 자리에서 진실성(진실이 아닌 진실성이라 표현합니다)을 따르는 것이 책임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회퍼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진실하게 말하려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누가 나에게 말하도록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가’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대상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말하게 하는 사람이 어머니인지 학교 선생님인지, 말하는 장소가 가정인지 교실인지, 내가 언급하는 대상이 아버지인지 옆집 아저씨인지에 따라 내가 진실하게 말하는 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너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야”라고 하면, 더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고자 위해 “네, 아빠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라고 사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주고자 “너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학교에서도 “옆 동네 아저씨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이 행동을 하게 하는지, 어디서 누구에 대해 이 말을 하게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만고불변하는 정답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적합한 행위인지, 무엇이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답은 없지만 리처드 니버나 본회퍼가 말한 것은 어느 정도의 구조화된 말과 행동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줬고 인간들이 쌓아온 지혜를 통한 구조적인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환대가 정답이 없는 행위이듯 책임 있는 응답적인 반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라면 보통 우리는 율법의 문자를 그대로 따르는 위선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는 내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율

법주의입니다. 은혜 대신에 행위로 업적을 쌓는 율법주의와는 정반대 현상 같지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율법이 문자적으로 허락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본회퍼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율법주의를 더 경계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본회퍼는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고 대리적으로 희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타자를 위해 대리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 타자를 대신해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이것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없이 본회퍼의 환대 윤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환대하고자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리처드 니버가 말한 응답이 일어나는 네 번째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회퍼가 많이 인용했던 루터의 유명한 말입니다.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라.’ 이것이 개신교 윤리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루터 신학의 핵심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개신교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하나 율법에 따라 옳게 행동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용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환대의 모험을 떠날 자유와 용기도 주어졌습니다.



둘째 날/ 발표

# 무슬림 회심자들의 영성 형성

● 이여미 | 프론티어스

저는 터키에서 15년간 사역을 해온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 팀은 한 도시를 개척해서 6년간 캠퍼스 사역을 했고,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는 커뮤니티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같은 지역에서 13년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언어가 잘되지 않을 때부터 아주 낮은 일로 섬겼고, 그저 현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커뮤니티로 사역 분야를 옮기면서 교회가 저희에게는 중요한 사역의 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열심히 설교, 찬양 인도, 악기, 성찬, 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주축이 되어 섬겼습니다. 마지막 4~5년은 3명 중 한 사람의 '장로'로서 임명 받아 목사가 없이 장로들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에 더욱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사역자들의 모습과 같이 저희도 주중에는 단체 일에 정신없이 일하다가 주말에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래도 기뻐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외국인으로서 리더

십으로 섬기는 것이 상징하는 것도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청년부 담당자로 세워지고, 저희 모든 팀원들과 제자들까지 저희 교회를 섬기도록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나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의 창립자 이브라임 장로가 변하기 시작한 것을 저희만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젊은 형제 하나가 갑자기 자신이 청년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허락해주더니, 저희 제자들의 연락처를 알아가서 만나고 저희 모임에까지 나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임과 교회가 둘로 나뉘는 모양을 보고 몇 달을 버티다가 이브라임 장로와 형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브라임은 형제의 편을 들며 잘 얘기해서 풀라고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형제는 펄쩍 뛰며 저희의 청년 리더로서, 장로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두 당 돈을 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냐는 공격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브라임 장로와 형제 부부가 저희 부부는 물론 저희 팀원,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인사를 안하고, 짜려보고, 설교로 공격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저는 그때부터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주님께 부르짖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23년 새해부터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장로들과의 만남에서까지 아무런 변명도, 공격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교회에 사과하고 울며 만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카라 소재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저희의 신상 정보를 밝히며 자신의 교회에 해를 가하고 떠났으니 양카라 모든 교회에서 받아주지 말라는 공지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양카라를 떠나라는

협박 편지를 A4 용지 3장에 달하는 분량으로 보내고, 저희 모든 팀원들과 가족들을 교회 모든 그룹 채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가 여태 믿었던 클레이네는 선교사고 너희 덕에 돈을 번다. 이제껏 너희를 속여온 것이다. 교회를 떠나면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의 공격은 본인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모양이었습니다.

2년여의 긴긴 싸움의 날, 주 앞에서 뒹굴고 울며 수많은 질문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터키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주의 일을 하는 사용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의를 저질러도 저는 그저 참아주고 맞아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토록 중요하며 제가 이토록 아픈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15년을 하루같이 이 땅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헌신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더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집을 나서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주님은 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일으켜지지 않던 몸이 말씀이 들어오니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진정 한 영혼이 변하는가’라는 질문에 빠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선교 역사를 자랑하는 지금의 터키 기독교나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인간의 변화에 의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일하시기를 쉬지 않으시지요.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현재는 머리로는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 새 마음으로 달려갈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 토론 질문

### Q. 회심자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로 살기를 거부하는 지체들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 A1. 회심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삶의 시간을 통해 이뤄져간다. ‘그들은 원래 불성실해, 거짓말 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나를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잦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받아들이셨는지 생각하게 된다. 회심자의 변화는 주님께 맡겨드릴 뿐이다.

- A2. 걸프지역에 회심자가 있다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나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 회심한 자들이 없기에 현지교회가 없다. 국제교회만 있을 뿐. 과연 현지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낙담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아름다운 창조계획을 갖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주님을 신뢰한다.

- A3. 회심자들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을 보며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모습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 A4. 현지 정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교회개혁과 성장이 어렵다. 종교경찰에 의한 선교사 조사와 추방 경험이 있다.

- A5. 세례를 받은 후에도 교회에 남는 수는 10~20%미만이다. 방향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 Q. 회심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A1. 잘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가 있을 때 제자화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보았다.

- A2. 회심했으니 저절로 영성이 형성될 거라는 전제가 위험하다. 우리가 가진 영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 너무 협소함을 느낀다.



둘째 날/ 발표

# 성령과의 동행

● 임재 | 두란노 해외선교회

안식년 이후 현장에 돌아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심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렇게 말라가의 모임을 기다리며, “삶과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셨는가?” 라는 주제로 나눔을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현장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한발 물러나 다시 한번 그분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분명 다양한 모양으로 성령과의 동행을 경험한다. 이는 비단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의 이야기일 것이다.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며,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선교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한다. 또한, 선교사로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장에서의 여러 상황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숙고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묵도하기 원한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함께 나누기 원한다.

현장의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현장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요나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를 표현한다. 니느웨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누리도록 초청한다. 요나는 이성으로만 알았던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욘 4:2)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누릴 때까지 열린 결말로 끝나는 요나서는 계속해서 요나의 삶 가운데 쓰여 갔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쫓으며 우리에게 그분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초청하신다.

이렇듯,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사역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사역의 중요함을 간과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지가 온전히 나무에 접붙여 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오롯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여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선교사가 현장에서 쉽게 범하는 오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 같다. 현장의 상황에 맞는 사역이 아니라 선교사 개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현장 가운데서 하려는 수고와 노력 말이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 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감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나의 자량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분이신 아버지만을 자랑해야 한다. 성령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게 한다. 나는 무익한 종이 되어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 이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현장에서 현지 영혼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이유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있는지 반추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 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과의 동행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그 성령과의 동행은 우리를 바로 보게 하며, 여러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현장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내어 줄 것이다.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으로 인해 당면하게 될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 삶의 터전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도전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오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직후에, 예수가 지시한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 그들은 그들을 혼돈케 하는 풍랑 가운데 물위를 걸

어오시는 예수를 보았다. 그들이 예수를 보았을 때에도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를 보며 더욱 당황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이가 예수임을 스스로 밝혔을 때에도, 풍랑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는 요청 대신 베드로는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풍랑은 여전히 잦았다.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풍랑 속에 있기도 하다. 세상이 인생의 '히로애락'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히로애락'은 존재한다.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말이다. 예수와 동행하는 순간에도 세상의 풍랑은 잠잠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때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한다.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져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기도 한다.

말라가 모임에 참여하기 전 나의 상황이 그랬다. 풍랑이 일었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꿔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한동안 그렇게 울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 같다. 그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몰입해 있는 나에게, '이제 그만하고 나를 좀 보면 어떠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한다. 오랜 시간 나의 투정과 어려운 마음을 쏟아내고 멈춰 있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셨다. 그렇게 그분의 온화한 초청은 이루어졌다. 이제 그만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시선은 풍랑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은 삶 가운데 당면한 어려움이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좌절과 실패의 기억들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에게 향해야 한다. 예수께로 고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함께 아파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성령을 인지할 때,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은 더 이상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생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그 어려움들이 변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견고케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이 순간들을 지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던가. 우리가 그분 손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아픈 만큼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그분 손 안에서 아픔은 성장을 위한 도구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만약 삶에서 같은 상황이 거듭하여 발생하고 그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그분 손 안에서 성장의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

선교사 중도 포기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에게도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 갈등 상황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 틀림없지만, 이 상황 또한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적어도 내 손바닥이 상대의 손바닥과 마주쳤음을 인정한다면, 이 상황 또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 배울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이렇듯 필요하다. 물론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손바닥이 나갔다는 인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잠잠히 인내함으로 손바닥을 내밀지 않은 채 있어 보는 건 어떨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과의 동행으로만 가능하다. 잠잠하겠다는 의지는 오롯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풍랑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처럼, 풍랑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하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그분 앞에 내려 놓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현장의 상황들이 비단 선교사에게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현지인 사역자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다. 고통의 상황 속 나의 묵상과 경험이 현지인 사역자가 겪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삶이 편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의 고뇌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부당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그에게 우리 역시 그 심판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임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그분의 주권 가운데 협력하여 선으로 행하실 그분을 함께 기다릴 것을 초청할 수 있었다.

그렇다. 아무리 고단한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있다. 선교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 안에서 성화되길 바란다. 사역이 아닌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사역의 열매들은 그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레 맺어질 열매일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나누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일 것이다. 이렇듯 어떠한 한 가지 방법만이 맞다고 규정할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파송 받기 전, 존경하는 선임이자 동기 선교사로부터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기도를 생각하면 좋은 본이 되어준 그 선교사가 먼저 떠오른다. 더할 나위 없이 기도는 중요하다. 나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린다. 가정, 팀 등 공동체로 부르신 자들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에 유익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서양 선교사는 성령과 동행함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다닌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 성령은 우리와 늘 동행함에도 그분과의 동행을 종종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리마인더는 성령의 임재를 상기시켜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찬양을 통해, 자연을 통해 성령과 동행함을 상기할 수 있다. 성령과의 동행을 위한 우리의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선교사로 현장에 있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든,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일이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서 더욱 그분을 알아가며 깊어져 가고 더욱 그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이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또한 그분 안에서 깊어져 가며,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바울이 말한 사랑과 인내가 이해되고 견고히 서라는 격려가 위로가 된다.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8571>



## 토의 질문

### Q.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고 있나요?

- A1. 나에게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는 외형적인 신앙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우울증을 앓고 나서는 그조차도 어려워졌다. 현재로서는 나의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언기도가 유일한 대안이다.
- A2.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아무 소리가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정신없이 살아갈 때 일기장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본다.
- A3. 일상 속에서 성경읽기, 설교듣기, 책 읽기, 신문 등에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정형화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현지 예배에서 현지인들의 나눔이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 이를 통해 행동의 변화도 일어난다.

### Q. 나에게 거듭하여 일어나는 관계, 상황의 어려움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직면해 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 A1. 무슬림권에서 나의 신분을 솔직하게 밝힐 수 없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무거움이 있다. 나의 신분까지 완전히 오픈해 교체할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사역자가 아닌 한국인 가정과 교제를 하다가 "당신은 선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들었다. 내 신분에 대해 투명하지 못한 채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 외로움을 느낀다.
- A2. 스스로를 돌아보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내가 해야 할 생각과 태도의 정답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 A3. 다른 이들을 잘 돌보았는데 지혜롭게 좀 멀리서 보고 배워가는 중이다. 기대치가 내려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 A4. 겸손의 멤버십은 어떤 것인가. 리더가 아닌 멤버십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있음을 보았다. 멤버이기 전에 공동체 일원으로써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다.

'23 Malaga Gathering  
Hospitality with the Holy Spirit:  
Responding to City and Wilderness

셋째 날 ● ● ●



#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

● 아브라함 조 | 한국이슬람연구소 부소장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 13:34-35)

스페인 23 Malaga Gathering에 참석한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묵상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선교 사역과 관련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정의하기 어렵다는 데이비드 보쉬의 말처럼, 특별히 무슬림을 향한 선교와 방법에는 뚜렷한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묵묵히 무슬림을 향한 사역을 헌신적으로 하시는 선교사들에게는 무엇이 성공이고 또한 실패한 선교인지 그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사역에 대한 도전이 늘 마음 한 곳에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역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선교는 Everything이자 Nothing일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만 가끔은 그 일을 그만두고 사역 현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행한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이슬람 국가의 담미, 즉 2등 국민 같은 현지 교회공동체와의 협력 및 도시선교 *Urban Mission*를 중심으로 무슬림 개종자를 돕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무슬림을 위한 교육과

구제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부딪치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등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을 품게 하는 여러 어려움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선교에 필요한 후원과 재정, 현지 비자 문제와 이슬람국가에서 선교사 신분제에 대한 정체성, 선교 현장에 점점 침투해오는 맘몬주의적 성공지향적 선교 모델 등이 사역자에게 더한 피로감과 부담을 줍니다(마 6:24). 여러분처럼 저도 이슬람국가에서 무슬림을 향해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한 신학적-실천적 고민을 자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화하는 이슬람선교 현장에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역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복음 선포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통전적 신학 *Holistic Theology*의 입장, 둘째는 공공선의 추구- 무슬림을 포함하여 21세기 지구 공동체가 겪고 있는 환경적 재난, 지구온난화, 취약한 인권, 전쟁, 가난, 기근, 테러, 핵무기, 난민 등 공생 공존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체적 가치 추구-, 셋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 제자도에 대하여

저에게 요한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내를 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있어서 결과 중심의 성공 지향적 사역보다는 성령 안에서 사랑에 기초한 관계 중심



의 열매 맺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요 13:34-35) 그런데 요한이 방금 언급한 제자의 길은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요 17:3).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영생은 문자적으로 ‘오는 세대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오는 세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 또는 사랑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로 몸소 경험하여 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초대받는 제자의 삶과 영생을 두고 사도 요한은 신적 충만의 생명인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상속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삶, 또는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 영원하심, 자유 하심에 참여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요 2:1-11; 3:16, 눅 14:15-2). 그러한 구원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요 14:21).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요 15:7-8; 10-11, 요일 4:7-8).

##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열매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비기독교인의 개종과 사회적 자립 돕기, 제자화, 난민 학교 운영, 교회를 많이 건축하기, 병원을 운영하기, 출판 선교, 우물 파기, 농장 및 비즈니스를 통한 자립과 문화 사역의 모델 만들기, 구제하기, 신학교 운영하기 등 다양한 선교 사역을 떠올립니다.

##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

그런데 베드로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신적 충만의 생명인 영생에 참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벧후 1:4).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제자에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 간의 우애,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벧후 1:5-8). 오늘날 양극화가 심각한 자본주의 시대에 외형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열매와는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들이 후원교회와의 장, 단기적 지원과 관련하여 사역의 지나친 부담감을 갖거나 불필요한 프로젝트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과장되고 부풀린 사역 보고로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려는 사역자들도 다소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열매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들 즉 정의와 화평과 기쁨이 증진되고, 인권이 확대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살만하고, 병자들이 치유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만물이 회복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열매들입니다(롬 14:18-19, 눅 4:17-19). 성령 안에서의 사역은 또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등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와 윤리적인 책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갈 5:22).

### 개인적인 요한복음 묵상의 결론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요 17:18).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충만한 삶(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요 3:16; 17:2-3). 따라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이웃으로 확대되어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의와 화평과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요 15:4-5, 롬 14:17, 빌 1:11).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분명 희생과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눅 10:25-28, 갈 6:2).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을 알 것입니다(요 13:34-35).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복음 사역도 지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 6:9).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품은 소망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길 소망합니다(벧전 3:15-16).



##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3)

● 김진혁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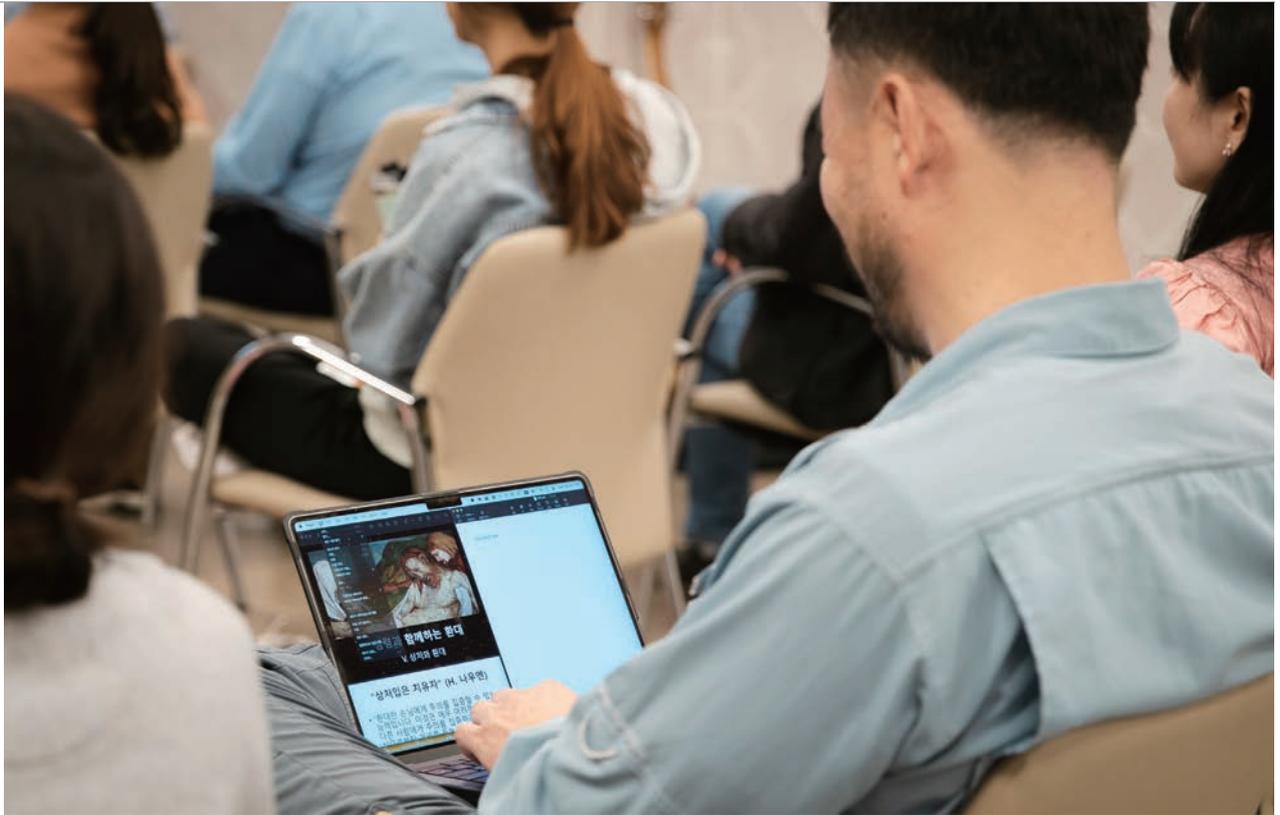
### V. 상처와 환대

‘모든 사람은 서로 상처만 주고받다가 결국엔 죽는다’라는 인간의 삶을 요약한 중세 라틴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환대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당면하게 되는 큰 상처, 이것을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령론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가라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환대 개념에 대해 살펴볼 문화적 소재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는 오랜 기간 이슬람 문명권 안에 들어 있다가 회복하면서 기독교 예술이 다시 부흥했습니다. 이슬람이나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은 성인 숭배를 하기에 이 지역에는 조각이 발달합니다. 또 스페인 가톨릭 예술의 특징 중 하나는 상당히 사실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예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많이 묘사되곤 하는데 우리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수로서 사형에 처해졌기에 옷을 안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문화에선 신이든 인간이든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교리적인 맥락, 혹은 종교적 심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주는 트라우마적인 강렬함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상처 입고 고통당한 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그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환대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환대에 대해 질문하며 이야기한 것을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둘로 나눠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우웬은 환대를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에게 환대란 손님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려면 먼저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로와 걱정과 긴장 등에 마음



을 빼앗길 때는 그 일이 힘들어집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자기중심성 때문에 손님이 있지만 손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공간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와 달리 손님의 공간이 계속 나에게 확장되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기 내적인 문제 때문에 환대는 어렵습니다.

둘째, 환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서로 간의 상처입니다. 내게 상처가 있고 손님도 상처가 있습니다. 의도는 없지만 내 과거의 상처가 손님 때문에 갑자기 기억이 나고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대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헨리 나우웬은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 진리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알게 되는 바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손님을 적으로 인

식하게 되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단지 인간의 고통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고통과 연결시켜 이해하는데 독특함이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연결하고, 그것을 극복하거나 감내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관계를 고민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 이해의 특별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환대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트라우마란 무엇인가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 서울대병원 웹사이트에서 환대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



신이나 타인의 신체적(물리적)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있거나 아니면 기억에 있거나 혹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상처가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크게 오는 사건이 있을 때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 즉 심리적 외상이 생겼을 때 특성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주위 사람과의 연결감,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보람이 있다는 의미, 지금은 즉각적인 효과가 없지만 이후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 같은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상처와 기억의 하나로 보는 것을 넘어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과 트라우마에 대한 미국의 연구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교사들의 경우 미국 사회에 있는 것보다 트라우마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5년도 미국인 대상으로 트라우마 빈도수를 봤을 때 일반인 중 3회 이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10%, 10명 중 1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으로 선교를 가면 그 수치가 4배로 뛰어 있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비율이 높아집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복잡하고 위협에 많이 노출되는 서아프리카는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선교사가 있으면 최소한 두 분 이상은 트라우마적인 경험, 기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표 1>

선교사들에게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상황을 나열하면 질병, 다음은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친지가 사망하는 경우, 전쟁과 테러에 노출되는 것 그리고 강도나 절도, 불안한 치안입니다.

많은 선교사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상당히 크게 트라우마가 남은 경우는 바로 긴급 철수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일반인으로 사는 것과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 가서 선교사로 살 때, 같은 사건이라도 트라우마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 지역의 특별한 점은 트라우마를 선교사 본인이나 가족이 겪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거나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트라우마 관점에서 선교 경험을 자료화할 수 있고 치료책을 매뉴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교리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트라우마를 어떻게 기독교 신학과 연결해서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고통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데, 그 기억은 의식뿐만 아니라 몸에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무의식과 몸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증상들이 일반적인 고통과는 다르기에, 특별한 주의접근과 신학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미국 신학자들 중 많은 이가 21세기 들어 9.11과 아프간 전쟁, 카트리나 태풍 등 대규모 사건과 재해 때문에 트라우마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일신론의 경우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자이자 역사의 섭리자로 보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첨예해집니다. 특히 전지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도 왜 창조하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왜 이런 식으로 다스리나 등의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이용하시는 섭리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고 부활을

## 선교 현장과 트라우마

- 트라우마 빈도수(2005년 미국인 대상 연구)

대상	3회 이상 남성 트라우마	3회 이상 여성 트라우마
일반 미국인	10%	5%
유럽 선교사	41%	30%
서아프리카 선교사	71%	64%

- 질병, 교통사고, 친지사망, 전쟁과 테러에 노출, 강도나 절도, 심각한 부상, 긴급철수..
- 선교사가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트라우마 경험한 사람들도 많음

▲ 표 1



▲ 그림 1 귀스타브 도레 <슬픔의 계곡>

죄와 죽음의 승리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문제가 되곤 하였습니다.

부활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상처와 죽음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인지 상처 입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상처와 고난에 대해 과도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고통의 현실이 부적절하게 표현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자신들은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도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가 했던 표현을 인용하면, 자신은 살아는 있는데 삶과 죽음이 범벅이 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자

기 삶의 근처에 죽음이 와 있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이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 고통이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와 통제력을 상실하게 해서 무의미 상태에 빠뜨리다 실질적으로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회복탄력성이 있어 몇 년이 지나면 점차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기억으로부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그 기간을 정량화할 수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림 1]은 귀스타브 도레의 <슬픔의 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온갖 군상의 인간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니까 영광의 광채가 비칩니다. 부활이 승리이고 죄와 죽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하여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빛



이 바로 비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빛을 믿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는 빛이 보이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21세기, 특히 9.11 이후 전 세계인이 트라우마적 사건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라우마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언어를 찾아냈는지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성토요일 그리스도의 음부행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에 있는 무언가를 생략해 왔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금요일, 부활의 주일 사이의 성토요일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토요일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토요일의 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 영향으로 사도신경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나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원문에 따라 '음부로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있고, 베드로서에도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우리에게 성토요일이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셨다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음부행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자로 가셔서 지옥문을 깨부수고 마귀의 소유였던 인류를 끄집어냈다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 많이 발전한 해석은, 우

리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죄책을 대신 짚어지심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음부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인간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음부행입니다. 칼뱅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의 저주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토요일의 신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리안 폰 슈파이어라는 의사였고 교육을 많이 받았던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는 1941년에 폰 발타자라는 신학자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부활주일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되면 갑자기 창에 찔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부활주일 될 때까지 앞선 날카로운 고통과는 다른, 하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고통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고통이었습니다. 폰 슈파이어는 원래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묵상도 습관화되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너무 허무하고 우울해져서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상태로 고통을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다음 해 성금요일부터 일어나났고, 정확하게 25년간 반복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신비 체험이 있으면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신학자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학적으로 지도하고 보고하게 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앞에 말씀드린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라는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토요일의 이 극도의 무기력과 우울함을 기록했습니다.

폰 발타자는 탁월한 문장가로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경험, 끔찍한 경험을 묘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이후 21세기에 트라우마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던 신학자들이 봤을 때, 폰 슈파이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생명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

에 겪었던 느낌들이 트라우마적인 경험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폰 슈파이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고 참여한 제자들의 허무함, 우울함, 불안감도 함께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고통을 끈질기게 경험하는데 흥미롭게도 그 가운데 결정체 같은 무언가가 계속 보였다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암흑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머물렀던 응축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무언가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유지하고 있음을 그 신비 체험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 체험에 대한 기록,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21세기 현대 신학자 중 일부가 트라우마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중 쉐리 램보는 토요일의 신학을 '중간의 신학'이라 부르며 트라우마와 연결하였습니다.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 중간 어딘가에 있는 신앙, 그리고 남아있음의 신앙이 그의 신학의 핵심어가 되었습니다.

### '중간' 혹은 '남아 있음'의 신학

트라우마는 단절을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아픈 기억, 트라우마적 기억과 비슷한 상황 앞에서는 인간의 입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자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트라우마에 있는 분들은 시간에 갇혀버립니다. 고통의 기억 속에서 시간이 연속적으로 경험이 안됩니다.

몸의 행동도 단절됩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과 유사한 상황 앞에서 몸이 딱 멈춰버리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놓쳐 버립니다. 언어와 시간과 몸의 단절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고, 폰 발타자와 폰 슈파이어가 경험했던 성토요일에 있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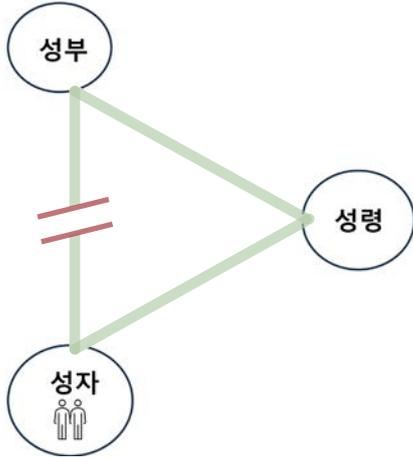
그런데 언어와 시간과 몸의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종교를 볼 때 이런 경험 앞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교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교리로 기독교를 많이 설명합니다. 교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내가 이해한 것을 저 사람도 이해 할 수 있도록 매끈한 언어와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가 되는 언어의 연속성, 시간의 연속성, 몸의 연속성이 트라우마 있는 사람에게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토요일에 성자는 성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버림받음의 경험, 저주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성자가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영원부터 성부와 누렸던 교제가 끊어지는 버림받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정의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상태'입니다.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로 형성되었기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공간 개념도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옥을 공간이 아닌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지옥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거이자 사랑의 근거인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상태라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받고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음이 그리스도가 경험하셨던 음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이후 성자마저도 하나님의 단절과 부재를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와 고통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 여부와 무관히 철저하게 버림받고 무의미한 상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부와와의 완전한 단절 상태에서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성자로 남아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고 철저한 단절이 있었음에도 그분은 아들로 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사랑의 끈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각형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가 끊

성령과 성도요일의 사랑 (그림 2)



어져 있습니다. [그림 2] 성자가 성부를 불러도 답이 없는 완벽한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마저도 사랑의 끈인 성령이 두 분을 붙잡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갇힌 성도요일이 지나고 부활의 빛과 함께 생명이 주어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저주받고 죽임당했던 성자의 본래의 정체성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단절 상태에서도 성부와 성자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끈, 고통 가운데서도 버티는 사랑이 성령입니다. 이때 성령은 승리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버티고 길을 헤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함께 있는 기진맥진한 사랑 *weary love*입니다.

### 고통 이후 성령 안에 남아 있기

트라우마는 현대 문명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성령의 또 다른 모습에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기진맥진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길을 찾도록 하는 성령이십니다. 물론 그런

성령의 모습을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발견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러한 성령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게 도와줄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요일이라는 구획된 시간이 1년에 하루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성도요일은 24시간으로 제한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는 성령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트라우마적인 경험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에겐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상당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 이후에 성령 안에 남아 있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마주한 제자들도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끔찍한 사고, 친한 사람의 죽음 모두 트라우마를 일으킬만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활 이후 반응을 보면 됩니다. 트라우마를 연구한 사람들은 제자들의 언어 속에서 트라우마적인 반응을 찾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둘의 반응에 차이가 나고, 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에 갈 때도 애제자는 먼저 뛰어가고 베드로는 뒤이어 들어가서 봅니다.(20장) 그 후 디베랴 호수에서 낚시를 할 때도 애제자가 먼저 알아봤지만,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갑니다. 요한복음은 애제자와 베드로의 배열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며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나 신경 쓰지 말라(21:22)'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서는 이 사람에게는 ‘머물게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 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제자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애제자가 남아있어도 베드로에게 무슨 상관이나고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특별한 업적을 내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기도 합니다. 특히 고통의 기억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효율적 인간이 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남아있음의 제자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도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면 내가 우울함과 무능력에 갇혀 있어서 제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남아있음의 제자도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중요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비효율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트라우마적 관점에서 읽었을 때 나오는 독특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의미 속에서,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트라우마 이후 사건 속에 머물러 있음.’ 이것은 단순히 실패나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이 역시 트라우마 이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환대의 사역자가 되려면 헨리 나우웬이 말했듯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나와 타인의 상처를 함께 대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타인의 트라우마, 상처와 상처가 대면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트라우마가 가진 위험성과 어려움은 삶과 죽음이 번복되는 혼돈과 무의미한 상황 속에 우리를 가둬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트

라우마에 관한 여러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트라우마를 대처하는 여러 지혜를 담을 수 있고, 죽음과 삶이 뒤죽박죽된 듯한 상황에서 머무르게 도와주는 신학적인 언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언어와 논리를 통해 회복탄력성이나 공동체 지지를 촉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언어의 시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중간의 신학 혹은 머무름의 신학도 중요합니다. 외상 후 끔찍한 삶을 경험하는 영적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는 성령 안에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혼란함을 말로든 글로든 행동이든 침묵으로든 증언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데 있습니다.

## VI. 환대의 실천

마지막은 실질적인 주제를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환대의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두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 3]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제단화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성례 개혁이었습니다. 이는 성례의 핵심인 성찬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묘사해 준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긴 테이블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 제단화에서는 성찬의 원래 의미, 교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자들을 동네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림니다. 성찬의 테이블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성인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일반인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개혁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혼자 성난 표정하고 왼손에 은화 주머니가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환대의 자리에 초청을



▲그림 3

받았음에도 자기가 한 발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도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 테이블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잔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루터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도 생명의 테이블에 초청을 하는 것이 성찬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 동기이고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환대가 강조되지만, 솔직히 환대가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이 될까라는 질문은 계속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역사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신념은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을 강화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함, 중요심을 종교를 가지고 정당화하거나 증폭해 왔습니다.

또한 성령과 환대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강조한 성령은 개인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변영, 축복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대보다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전쟁이 많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국가 간 이주가 왕성히 일어날 때에는 환대보다 구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포용의 역사 이면에는 배제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유럽 근대 역사는 계속해서 관용과 포용을 강조해왔지만, 그럼으로써 더 배제의 기제를 은밀히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선을 베풀다면서 더 큰 악을 저질렀고, 유럽 문명을 전한다며 다른 나라 문명을 파괴했고, 인권 사상을 전파하고 제도화한다며 더 큰 착취를 하였습니다. 현재 중동 상황에서도 정치나 외교라는 세련된 명목 하에 누군가에 대한 배제 혹은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용과 포용의 역사 이면엔 동시에 배제의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부터 환대의 마음의 습성, 형식적으로 환대를 제도화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토양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환대가 왜 중요하게 되었냐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에서 환대라는 말이 핵심어가 된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특히 세계대전이 기폭제가 된 것은 유럽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트라우마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이들을 이 사회가 다시 환대하고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림 4]는 이곳 말라가 신학교의 채플 전면입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를 선한 목자로 만드소서 그럼으로써

이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를 예비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곳을 만든 주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하신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신학교육을 하고자 이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학교 채플 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인데 그 빵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림 5, 6] 성찬은 단순히 어떤 성례의 몸짓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가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지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대의 패턴과 상상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성찬과 환대: 함께 먹기

성찬은 공간을 열고 함께 먹는 환대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 제단화에서도 보이듯 함께 먹음

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먹음과 공간의 문제는 계속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환대를 실천하려 하지만 미로슬라브 볼프가 얘기했듯 환대의 역사는 오히려 배제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환대와 포용이 배제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면 현실을 하나님의 세계이자 성령께서 계속 활동하시는 장으로 볼 수 있는 초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초점 연습은 먹기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구원은 식사와 결부됩니다. 때로는 매우 평범한 식사와 결부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늘 제기됩니다.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기본적인 환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가지로 족하고 마리아는 그걸 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들

▼ 그림 4. 5, 6





은 한 가지면 족하다를 음식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차렸냐 많은 것이었느냐가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환대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날 밤에도 식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당시는 송아지를 잡으면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럼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세 천사 정도만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은 온 식솔들이 그 식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떠날 때도 식사를 하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식사를 하고 함께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대의 장소에서 함께 먹기라는 것은 단순히 내부 사람들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도 함께 하는 식사로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웰빙 시대에 인기 있는 말이 “You are what do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바”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대 신학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You are who you eat with, 너는 네가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존재다.” 환대의 신학에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의 문제로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먹기

식사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대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 또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 속에서 주고받음이 있다는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입니다. 음식과 음식문화는 그 시대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역사같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기

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한다는 걸 넘어서 인간을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식탁 교제를 계속 확장하여 회복과 포용을 상징하는, 다른 말로 하면 모두를 환영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삼으십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기 위한 식사법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죄인과 세리를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 통념, 율법에 대한 해석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가르고 배제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용납하는 사회라는 것을 가시적,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미리 맛보게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먹는다는 의미는 잘 먹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의 선물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누구나 환대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해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먹는 방법의 하나라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랑 이야기 잘 통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어야지 아니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도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대의 장으로서의 성찬과 식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는 식사 교제가 있다가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시 성찬과 식사가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당시 만들어진 오래된 교회를 방문했더니, 예배당 안에 성찬을 위한 공간도 있

고 교제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즉, 성찬과 교제의 식사를 위한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 거대한 교회의 공간을 함께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축 구조는 하나의 사례겠지만, 성찬과 식탁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찬에 함께 계신 성령이 성찬 이후에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함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성찬에 현존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공간을 허락하셨고, 성찬으로는 자기 몸을 빵과 포도주로 주십니다.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성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성찬이 제정될 때 배신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찍은 사람이 2명인데 하나는 이미 배신한 유대이고, 다른 사람은 앞으로 배신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은 배신자마저도 부르시는 하나님, 이미 배신했는지 앞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런 조건 없이 성찬의 테이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영감의 관점에서 본 환대

성찬과 더불어 우리가 또 다른 초점 훈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성령론적 주제는 영감입니다. 현대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 다르게 관계 맺는 법을 익히려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영감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통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령의 영감과 조명을 나누기도 합니다. 성령의 영감이라 하면 성서가 쓰일 때 성령

께서 성서 기자들에게 활동하셨던 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상 언어에서는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자기가 일상적으로 가졌던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을 하거나 예술적인 성취를 할 때 영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서에 나오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이면서 동시에 창조 때부터 계셨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기도 하다는 것은 영감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자유로운 분입니다. 성령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성령이 창조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게 마련인데, 성령을 넓게 이해하는 것도 환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영감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창조 세계 전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성령은 계속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통전적인 존재라면 성령의 활동은 저희 삶에서 통전적으로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펼치는 다양한 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칼뱅주의나 개신교의 여러 교단에서도 종교, 예술, 과학, 도덕같이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계가 없는 영역에서도 성령께서 활동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성막을 만듭니다. 이는 성령이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누구에게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표현하려는 인간



육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이 강조되는 서방교회에서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만, 동방정교회나 시리아 정교회처럼 성령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예술 창작 활동 속에서 성령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언어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듯,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표현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다는 것이 종교 예술을 발전시켰던 중요한 성령론적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활동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역할입니다. 성찬을 예로 들어 보면 하나님은 밀을 창조하셨지 빵을 창조하신 않았습니니다. 빵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포도를 포도주가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 형상인 인간의 노동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주시고 자신을 주셨고, 인간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인간이 온 우주의 대표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문화적으로 바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온 우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성과 인간의 창조성, 하나님의 환대와 인간의 환대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펼치는 다양한 문화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고 향유하고 표현하는 마음의 습관을 익혀갈 때,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과 시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이슬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 지난호

에 예술을 통한 사역 현장 기사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예술을 통한 사역도 하나님의 새로운 활동이 일어나게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화시키고 완성하는 역할입니다. 같은 성령이시나 우리 시선에서 보면 성령은 성화를 거쳐 우리가 완성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점에서 보면 완성시킬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하는 활동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활동들 속에서 완성된 모습을 끌어내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실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비추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말의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성령의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력, 미학적인 영감 그리고 다양한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아름다움으로 그곳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에 맞게 세계가 변하길 원하는 욕망, 그런 욕망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한편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고, 말씀에 전달된 것들을 다양한 감각 기관에 호소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환대 사역이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 세계를 빚어가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창조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온다고 해도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환대를 미리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신학적인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예술을 통한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7]은 지저 쾨더(Sieger Köder)의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보통의 식사하는 자리가 그림 중앙에 있습니

다. 여기 누구의 손인지 모르지만 빵을 떼어서 주는 모습이 보이고, 다양한 피부색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인지 짐작할 만한 얼굴이 가운데 반사되어 비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의 풍성함, 풍요로움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나오는 즐거움, 그리고 환대의 느낌이 주는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

▼ 그림 7





을 꿈꾸는지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세상을 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미학적인 영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환대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폭력과 증오의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폭력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용서, 용납, 환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는가라는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과 죄인을 용납하기로 선택을 하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도 포용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볼프는 포용하려는 의지가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포용하려는 의지가 먼저 와야 합니다. 이 포용하려는 의지가 오늘날의 환대 사역과 선교와 결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명령으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고 나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바로 하는 일이 성찬 참여였습니다. 세례받고 바로 성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교회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환대받고, 공동체에 환대받음으로써 환대를 실천하는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현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명령과 더불어 요한복음의 선교적 해석학에서 강조되는 ‘새로운 계명’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과 우정의 명령입니다.

데이나 로버츠 Dana Roberts라는 보스턴 대학교의 선교역사학자가 2023년 5월 한국 새문안 교회에서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136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을 땅끝으로 보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선교의 핵심어로 우정과 환대, 함께 걸어감을 제시하며 강연을 끝맺었습니다. 이때 그가 강조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재발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4-35)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3-15)

여기서 제자와 친구가 평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양을 먹이는 제자들도 있지만 머무를 수 있는 제자, 친구가 되는 제자도 오늘날의 선교에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라는 주제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 발표

# 성령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에 대한 도전들

## 선교사들의 팀워크 및 도전

● 한빛 | 프론티어스

이 글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꿈꿔 꾸었던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과 새로운 희망을 케이스별로 담은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읽는 분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가급적 부정적인 케이스들은 지양하고 긍정적인 반전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간다.

### 1. 성령님은 복수(plural)의 성도들/사역자들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Know ye not that ye are the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eth in you?” 라고 하신다.

위 말씀은 예수님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 특별히 선교사들 안의 모임 중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안다. 그러나 그 사역자들이 모임, 공동체에 대한 도전은 늘 있어왔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선교사의 선교보고나 기도편지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기에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로만 다가온다. 이 글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 조그만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가 모여서 공동체를 세울 때 미리 주의할 점을 고려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 2. 팀워크에 대한 강의 내용

2010년 어떤 외국 선교사가 팀워크에 대해서 나누는 강의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다. 대략적으로 기억해서 말하자면,

- Teams fail, 팀이란 것은 실패한다.
- Teamwork is powerful, That's why Satan hates teamwork, 팀워크는 강력하다. 그래서 사단이 팀워크를 싫어한다.

우선 팀이 실패한다는 말은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뭐라고? 팀워크를 강의하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초치는 말을 한다. 팀은 실패한다고! 그런데 강의를 듣고 1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다, 팀은 실패해왔다. 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다. 내가 함께 했던 팀들이 실패했던 것도 그렇고, 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가 실망을 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두 번째, 팀워크는 강력하다. 그래서 사단이 팀워크를 싫어한다. 이 말은 팀이 실패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게 한다. 팀워크가 강하다는 것. 팀워크는

멋있다는 것, 이것이 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이 팀워크를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의 묘사이다.

그 선교사의 강의를 들은 후 나의 소감은 다음과 같았다. 팀워크가 너무나 강하고 멋지기에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팀워크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구나. 그렇다면 팀워크가 실패했다고 너무 낙담하기 보다는, 그 팀워크가 유지되는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하자.

### 3.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어 동역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 주제는 선교지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많고, 특히 미전도지역 무슬림들은 그런 공동체성이 강하다. 이러한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사들과, 혹은 현지인들과 어떻게 동역하는지 현지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보여질 것이다. 만일 선교사들이 서로의 은사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델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성령에 이끌리어 동역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4. 교제, 협력 & 동역의 사전적 정의와 그 관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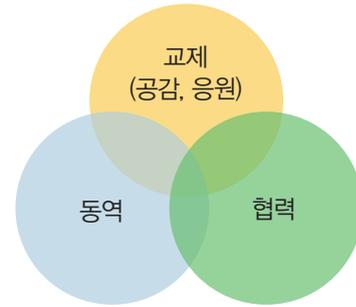
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세가지 단어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자. 그것은 교제, 협력 그리고 동역이다. 이 세가지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제(交際):** 1.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2.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

**협력(協力):**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동역(同役):**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함.

굳이 이런 세가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사역자 간의 모임이 대략 이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 함께 만날 때,



어떤 분들과는 서로 사귀어 나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과는 한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과는 동일한 사역을 함께 하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 교제와 협력과 동역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 즉 교제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동역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동역자에게 상처입고 힘들어 할 때, 동역자가 아닌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친구로서 위로해 줄 때, 혹은 상담을 해 줄 때, 그것은 광야에서 만난 샘물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며 상처입은 사역자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

### 5. 필자가 경험했던 몇 가지 케이스

필자는 팀워크에 대한 도전을 몇 가지 케이스로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가 바라보는 각 케이스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열어 두고자 한다. 필자는 각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보거나 혹은 소그룹으로 위 내용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특히 소그룹 토의를 위해서는 두가지의 질문을 제시했으니 함께 답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 좋겠다.

#### 케이스 1

A 선교사는 혼자서 사역을 하던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 B 선교사와 C 선교사가 A 선교사와 동역하기 시

작했다. 그런데 세 사역자가 동역할 때, A 선교사의 개성이 드러났다. A 선교사는 오랫동안 단독사역을 하였기에 항상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옳다는 사고를 하고, 동역자들의 생각과 방식에 대해서 틀렸다고 지적을 많이 한다. 이로 인하여 B, C 선교사는 마음에 불편함을 가진다.

#### 케이스 2.

D 선교사는 동역할 때 자신이 머리가 되는 자리가 아니면 많이 불편해하고, 그 일을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팀원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했을 때 D 선교사는 “이 사역은 제가 이끄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팀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 드리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후에 동역 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 케이스 3.

E 선교사와 F 선교사는 서로 친한 관계이다. 그런데 E 선교사가 최근 들어 G 선교사와 긴밀한 동역 관계에 들어갔다. F 선교사는 G 선교사를 유심히 관찰하고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F 선교사는 E 선교사에게 G 선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E 선교사는 마음의 갈등을 시작한다. 동시에 E 선교사는 G 선교사 뿐만 아니라, F 선교사도 주의해서 지켜보게 된다.

#### 케이스 4.

H 선교사는 I 선교사와 교제를 한다. 그런데 H 선교사가 볼 때 I 선교사는 권면을 하면 듣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간다. 반면에 I 선교사가 볼 때 H 선교사는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 결과 H 선교사와 I 선교사는 동역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 토론 질문

#### Q. 팀사역, 동역이 어려운 경험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A1. 파송 교회의 입김이 센 연줄을 가진 사람은 편리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언어 교육, 한인 교회, 한인 동호회, 프로젝트.... 열매는 없다. 나름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가 맞는가?
- A2. 수직적인 한국문화, 나이 많은 리더에 대한 불만, 사역지에 와서 각자가 다른 기준, 기대로 인한 긴장이 계속 증가.
- A3. 느슨한 공동체는 내부적인 문제는 적지만 함께 동행할 친구 같은 팀이 그립다.
- A4. 교제할 땐 좋았는데 사역으로 들어갔을 때 리더의 강한 스타일로 인해 사역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마무리가 깔끔하지는 않았다.

#### Q. 성령이 세워가시는 동역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 A1. 사역팀은 최소한의 사역 목적과 목표와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 A2. 한국교회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문화가 선교지에서도 이어짐으로 오는 문제점이 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팀의 문화, 팀 리더와 팀원이 함께 훈련해야 한다.
- A3. 동의 되지 않는 사역을 향한 비판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에 집중하자.



셋째 날/ 발표

# 도시에서 만나는 광야

● 홍재훈 | 한국이슬람연구소 부소장

## 1. 성령

수동태적으로 성령께 이끌려진 상황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태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에서의 돌파관련. (성령/기도/실천/열매)

- (발단) 현지인 친구들이 준 현지 지역 정보.
- (확장) 위의 정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과 연관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역과 비전을 주심.
- (시도) 위의 일들을 하기 위해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해 무작정 해당기관 찾아가기.
- (문제대면1) 담당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과정. 기도, 지혜, 혜세드.
- (문제대면2) 최고 매니저와의 만남, 아랍식 교제와 접근, 구름조각 보기.
- (막장 확인하기) 그 문이 닫혔는지 완전 끝을 보았는지. 한두 번 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라면 누릴 수 없었던 열매들.
- (열매) 지역사회에 더욱 깊은 신뢰, 회원들에게 신뢰, 무형의 플랫폼에 대한 기도제목을 견고케 하심.

## 나눔질문

- 이슬람권의 우리들의 행동, 적극성은 어떠한가? 막장을 볼때까지 문을 두드려 보았는가? 막장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 서구 선배들이 만든 기준에 나를 무작정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cf. 이슬람권에서 우리와 서구인들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인식 차이)

## 2. 환대

- (착각) 아랍의 환대문화로 현지인들과의 관계 깊이의 오해.
- (점검사항) 문화적 환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솔직한 소통으로 위한 환대까지 가고 있는가.
- (거절) 아랍의 성대한 첫 환대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 있으나, 깊은 곳으로 가는 여정에는 거대한 장벽들의 직면과 함께 매물찬 거절을 맛보게 됨.
- (거절 극복의 힘) 하나님께서 주신 환대들.
  - (모멘텀) 죽마고우로 가기 위한 과정.
  - (결과) 들리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부족원.

### 나눔질문

- 서구인들의 성향과 다른 동양인의 기질을 지닌 내 성향에 맞게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 무슬림의 문화적 환대로 현지인들과 실질적인 관계 파악에 실수한 것은 없는가?
-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환대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3. 도시와 광야

- (도시) 사람들이 밀집되어 허브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
- (온라인 도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배포되는 SNS활동이 아닌)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모임.
- 다수의 한국 기독교청년들과 소수의 무슬림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온라인 도시. 매주 모임을 통해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을 누림.
- 청년 사역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쉽게 갈 수 있는 탄력이 생기듯 로드마스터가 도시적 허브 역할로 다른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선효과.
- (광야) 현지인에게 광야(미드바르)적 요소를 제공.



### 토론 질문

**Q. 무슬림 사역의 장벽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장벽은 실제 장벽이었나요? 아니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나요?**

- A1. 진리인 것은 알겠으나 민족과 문화를 배신할 수는 없다는 수많은 구도자들의 고백이 있었다.
- A2. 물질 문제. 과거 현지 교회 모두가 가난했을 때는 행복했다. 많은 후원, 자교회 헌금의 분량을 크게 넘어서는 돈으로 구제를 하는 교회와 물질주의에 물드는 현지인들로 인해 언제 교회가 무너지질 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다.
- A3. 현지인들에게는 엄격한 종교 활동. 추방당한 협력 동료들을 보며 위축된다. 보안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활동이 전무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A4. 민족성. 그들 자신의 종교에 대한 무지, 그에 따른 복음에 대한 왜곡, 문맹, 지식의 부족.
- A5. 마음의 장벽을 깨는 것이 어렵다. 시간을 두고 진실하게 접근하여 언어의 장벽 등 외형적인 장벽이 도리어 깊게 영혼을 연결해주는 계기와 기회가 되기도 했다.

**Q. 성령과 함께 돌파하고자 시도해서 성공한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1. 공동체가 좋으니 고민하던 구도자가 믿었다.
- A2. 공황장애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깊게 찾고 만나게 됐다.
- A3 가정 교회 교인들에게 핍박을 이기는 성령의 힘을 가르치던 것을 살아내려고 추방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 A4. 무슬림과 성경을 보고 복음을 나누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병중에 있는 한 형제와의 만남을 통해 가족 모두와 성경을 보게 되었고, 다수와도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돌파를 경험했다.

# 우리의 기도

● 임재 | 두란노 해외선교회

열방의 주 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비하신 말라가의 시간들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더욱 견고하여 지고  
오롯이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담대히 그 초청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 하였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 보다 열매를 찾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철저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안에 거함으로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며 성령과 기쁨의 동행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동료 선교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고백합니다. 그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령안에서 그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길 기대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 인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로 겸손한 자 되게 하사 우리의 의와 교만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룩한 훈련

과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현장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사건과 상황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좌절이 몰려오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변화보다 그 상황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혼의 짐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잠잠히 기대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떼어져 나누어진 몸을 기억합니다. 성령안에 우리의 삶이 떼어져 각자 부르신 열방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일을 묵도하게 하옵소서.

온 열방으로 주의 이름 높일 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3 Malaga Gathering Hospitality with the Holy Spirit: Responding to City and Wilderness

폐회설교

## 환대의 재구성 Deconstructing Hospitality

● 박두레 | OM

누가복음 10: 38-42

지난 3박 4일간 우리는 분에 넘치는 지성의 멋진 식사를 했습니다. ‘환대’라는 주제의 여러 가지 성경적인 면모들을 신학적으로 풀어 주신 교수님과 좋은 말씀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한 찬양과 여러 섬김의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 한 손엔 커피 텀블러 다른 손엔 스마트폰

현대인 특히 현대 선교사, 지성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당히 신체를 각성 시켜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또한 지적인 욕구들을 언제나 만나게 해주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신앙을 더 이상 삶이 아닌 지식으로 만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전하기 보다는 manifest 지식으로 전하는 teaching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교육수준이 높고 사람들이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삶을 결정하는 사회가 아닌 생활 경험과 느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과연 무엇인가를 선교현장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행동이 아니라 변화된 삶 transformed(롬 12:2), 그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삶에 나타날 때 manifest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삶의 간증이 되는 것이 선교라고 봅니다.

**성경의 재구성**(Reconstruct - 이 말은 프랑스 철학자의 말인데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따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냥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성경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자기들의 Vers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세계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들은 자동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꺼



내 오고 우리의 복음제시는 이들의 잘못된 세계world를 우리의 창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고 맙니다.

#### 아브라함 vs. 브라힘, 예수아 vs. 아이사(위드 미리암) 등등

이들의 세계 속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메시아를 통한 성취를 나누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무슬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한다고 오해하고 논쟁을 하기 보다 삶을 통한 복음의 선포not proclaim but manifest가 우리의 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환대 이야기는 환대를 어떻게 하느냐, 혹 환대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는 전통적인 해석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환대,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는 환대의 선교적 재해석을 보여 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 호스트는 마르다와 마리아지만 진짜 주인Lord of Host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이라 아니라 주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The Lord of Host이 되셨고, 우리의 손님 무슬림들을 초대하시는 분은 예수님The Lord of Host이십니다. 우리는 이 초대의 주인이신 분을 돕기 위해 마르다처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는 유대교의 신비주의 교리 Tsimtsum(the Jewish mystical doctrine of Tsimtsum)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hospitality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우주에 꽉 찬, 편재하신 Omnipotent and Omnipresent, he filled the universe with his Being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 자신의 편재하심에서 물러서서withdrawal 창조의 공간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환대는 우리가 무슬림을 초대했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며, 이 주인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이웃인 무슬림에 대한 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Being를 물리고withdrawal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듯이, 우리의 존재를 무슬림 손님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난 3일간 같이 고민한 삼위일체의 환대이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 전혀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다

● 송율 | 인터서브



선교지로 나온 지 햇수로 7년차 된 해에 받은 ‘이슬람권 사역자’를 위한 초대장. 내게는 이 초대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슬람권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일종의 임명장처럼 느껴졌다. 7년은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이 제서야 이슬람권 사역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하게 반응한다.

선교지로 나온 첫 3년은 어떻게 하면 이 선교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골몰하던 시기였다. 화려하고 개방된 것처럼 보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지만, 영적인 눌림과 척박함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만큼 버겁고 힘들었다. 그 짓눌림은 지금껏 경험해 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나의 영혼은 피폐해져 앙상한 나무처럼 되었다. 타인에게 나눠줄 열매는 고사하고 푸른 나뭇잎 하나 없는 겨울 나무처럼 된 나는 이슬람권 사역과 나의 기질은 맞지 않아 이 곳을 떠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떠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만 공허하게 돌아왔다.

그러던 중 남편과 친정 아버지가 동시에 암 진단을 받았고, 그때 나는 남편을 살려주시면 아부다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알겠다며 기도

하고, 아부다비를 증오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했다. 남편의 암 수술 이후부터 나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아부다비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무슬림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두 번의 부르심을 경험하며, 내가 이곳을 살아가는 이유는 현지인 여성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을 향한 나의 마음 상태가 변화되었기 때문일까? 초대장에 적혀 있는 ‘이슬람권 사역자 여러분’이라는 문장은 ‘내가 너를 이슬람권 사역자로 인정한다’라는 하나님의 임명처럼 다가왔고, 이 초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스페인 말라가로 향했다.

첫날 저녁 서른 명 가량의 초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기소개를 하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초대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한 것이었다. 김아영 소장님의 환영사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쉽고 성장이 있는 모임”이 되기 원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아직 첫날이기에 우리 모두는 ‘23 Malaga gathering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함’이 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둘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동일한 일정이었다. 오전에는 주제강의가, 오후에는 발제와 조별 토론이 이어졌다. 표면상 훌륭한 일정 같아 보였고, 가벼운 마음으로 둘째 날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진혁 교수님의 주제 강의를 시작되며 이 일정은 결코 훌륭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성령과 환대’라는 주제로 시작된 강의부터 새롭게 다가왔다. 보통 환대와 연결된 주체는 성령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하여 고려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환대를 이야기해 왔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 교제를 환대라고 명명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과 환대? 이어서 본디 갖고 있던 ‘환대’라는 개념의 틀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환대라는 것은 손님의 필요를 채우고 대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환대의 참 의미는 대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내어 줌making room’에 있었다. 환대가 상대방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라니... 상대방의 필요와 음식을 제공해 주는 섬김의 형태는 나의 공간을 내어 줌으로 인해 파생되는 하나의 가시적인 행동들 중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대의 관점에서 본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최초의 환대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의 무한한 존재 영역을 인간에게 일부 내어줌으로써 당신의 세계 안에 인간의 시공간을 허락하신 창조의 사건은 환대의 본질이자 사랑이었다. 또한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하나님 옆 자리에 우리의 공간을 만드시는 환대를 실천하셨다. 성령님 역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삼위일체 교제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심으로 하나님의 환대를 받게 되고, 또 삶 속에서 환대하는 자로 빛어가는 환대의 영이심을 알게 되었다. 김진혁 교수님의 강의는 쉽고 간단하게 요점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지만, 그 명제들로부터 생각할거리들이 우후죽순 발생할 만큼 깊은 통찰을 기반으로 했다. 강의와 함께 생긴 질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선교지에서 다시금 되새기며 반추를 요구하는, 즉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을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곧이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참 의미의 환대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면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인 현지인 여성들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가? 뜻밖에도 나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내가 현지인 친구들과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언제나 그녀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고, 그것이 별문제의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환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경제적으로 나보다 훨씬 부유한 그녀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지역 문화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화려한 그녀들이 나

의 소박함과 평범함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직면할 수 있었다. 그 두려움은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환대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현지인 친구들을 향한 성령의 환대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말라가에서 그 두려움을 회개했고, 현지에 돌아와 이제는 나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집으로 그녀들을 초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환대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다.

‘23 Malaga Gathering’에서 잊지 못할 추억은 현장 사역자들과의 소소한 나눔이자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었다. 환대의 시작인 얼굴을 마주하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시니어든 주니어든 나이와 경력을 넘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며 즐길 수 있었다. 세계 곳곳에 떨어져 살다 보니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당시의 서로를 만끽하고 있었다. 얼마나 복된 만남과 교제인지!

이런 아름다운 교제는 다섯 째 날 알함브라 역사기행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라나다 지방의 예상치 못한 강우로 인하여 우리는 비를 맞으며 알함브라 궁전을 둘러보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을 타인에게 넘기며 본인은 비를 맞는 양보의 미덕에서부터, 강한 바람으로 날씨가 추울 때 자신의 옷을 타인에게 넘겨주며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들은 어느새 우리가 처음 만난 타인에게 환대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만큼이나 알함브라 궁전 역시 역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궁전 안에는 무어, 이슬람, 기독교의 세 가지 문화가 서로 교차하며 변화를 반복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독특했다. 나스르궁에 새겨진 아라베스크 문양은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뛰어난 예술작품 못지않았다. 예정된 투어가 거의 끝날 무렵, 장대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밝은 태양 빛이 우리를 마주했다. 비 온 뒤 더욱 청명한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알함브라 역사 기행과 더불어 ‘23 Malaga Gathering

의 모든 일정을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마치도록 우리 모두를 감싸며 헤어짐의 포용을 나누는 것 같았다.

‘23 Malaga Gathering’을 마친 후, 누군가 이 모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23 Malaga Gathering’은 우리의 삶에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위로의 공간, 동역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내 삶에도 은혜를 구하는 도전의 공간, 각자 다른 문화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나라를 꿈꾸는 연합의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만들어진 이 공간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환대의 영이신 성령께서 ‘23 Malaga Gathering’에 부어 주신 은혜이다. 그리고 환대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환대하는 자로, 참된 의미의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 Teaching the Word Changing the World



#초교과 #복음주의신학대학원 #영성 #선교  
#전세계 55개국 2200여 명의 졸업생 #TSMS

## 국내외 선교사, 예비 선교사를 위한 신학 훈련과정

- 목회학석사(MDiv) 과정, 문학석사(MA) 과정 기독교 상담학 또는 기독교 교육학 전공에서 복음주의 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석사(ThM)과정 및 철학박사(PhD)과정으로 깊이 있는 신학연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다문화적, 선교적 경험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전 과정 영어로 수강 가능)
- 파송 선교사(5년 이상)는 특별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 해외 선교 현지에서 다음 세대 리더를 보내주세요!

- 햇불 전략적 선교장학(TSMS)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 현지의 유학생을 선발하고, 재학 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통해 역량 있는 목회자/ 기독교 사역자로 양성하여 본국으로 재파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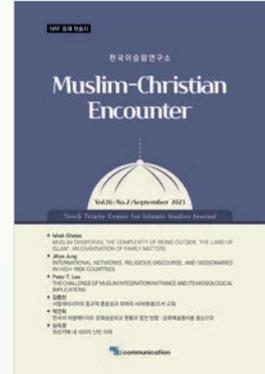
\* TSMS Pre-application: 8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www.ttgu.ac.kr](http://www.ttgu.ac.kr)

Tel. +82-(0)2-570-7372 입학 안내 [admissions@ttgu.ac.kr](mailto:admissions@ttgu.ac.kr) TSMS 지원 [tsms@ttgu.ac.kr](mailto:tsms@ttgu.ac.kr)

## 연구소 소식

- 한국이슬람연구소가 일 년에 두 차례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NRF) 등재 학술지 Muslim-Christian Encounter의 2023년 가을호(16-2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무슬림 디아스포라에 대한 가족이슈 중심 연구, 무슬림 국가와 같이 위험한 지역 선교에 기꺼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국제적 선교 담론이 끼치는 영향, 프랑스 무슬림 통합의 도전과 선교학적 함의, 서말레이시아의 종교와 교회, 한국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적 외교 현황과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이해에 대한 연구를 담았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

### 연구소 후원

온누리교회, 방주교회, 이명경 목사님, 갈보리교회, 앓쌀람선교교회, 명선교회, 인터서브코리아, 공미정, 김주희, 문정희, 이상택, 이준희, 정정일

### 한국이슬람연구소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401-150815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한국이슬람연구소)

#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 한국이슬람연구소를 섬기는 분들

소장 | 김아영 부소장 | 권지윤, 김진영, 이경희, 조재혁, 한하은, 홍재훈 총무 | 이준희 협동총무 | 이현경  
편집 연구위원 | 김선일, 김철수, 문시영, 박형진, 이현모, 정승현, Dudley Woodberry, Enoch Kim  
연구원 | 김민영, 김정년, 박선경, 이해민, 최규진, 황원주, Priscilla Choi  
행정간사 | 김주희, 박성훈, 정유나, 홍유진

#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067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1길 70(양재동) 햇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70 Baumeo 31-gil, Seocho-Gu, Seoul 06752, Korea

Contact 02-570-7563 E-mail [ttcis@tgu.ac.kr](mailto:ttcis@tgu.ac.kr), Homepage <http://ttcis.tgst.ac.kr>